

제232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63세 청년' 이웅열 '뷰티회사' 창업 2



美 주지사들에게 '수소차' 공기정화 보여준 정의선 12

코스피(7일 전주 대비) **2211.95** (+92.94P)
코스닥 **672.63** (+30.15P)
환율(달러당 원화) **1186.50** (-5.3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380%** (-0.023%p)

은행, 中수출기업 '신용장 네고' 거부...정부는 뒷짐

〈수출상 매입 대금 선지급 요청〉

기업·하나銀 “항공편 끊기면서 수출매입서류 송부 못해”
우한에 이미 화물 보냈는데 항구에 묶여...기업들 ‘발 동동’
금융위측 “상황 인지 못해...피해구제 대책 마련 때 검토”

은행별 신용장 네고 대처 상황

은행명	우한 수출상 BL매입 현황	수출상 지원 및 대처 계획
기업은행	수출채권매입 제한	선적서류 수취 방법 변경 협의 유도
KB국민은행	수출채권매입 제한	2~4개월간 부도유예처리 지원
신한은행	수출채권매입 제한	입금지연이자 면제, 부도유예기간 연장
우리은행	수출채권매입 제한	신용장·계약서상의 배송지역 변경 처리 권유
NH농협은행	수출채권매입 제한	매입의뢰 단계에서 선적서류 배송중단 사전 안내

* 신용장 네고: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 화물을 선적한 뒤 신용장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것
* 선하증권(BL): 해상운송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

정부의 대(對)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우한 지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해당 지역 은행에 무역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발이 묶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시중은행이 수출상의 매입 대금 선지급 요청을 통칭하는 '신용장 네고'를 거부하면서, 수출상들은 화물을 보내고도 선박을 항구에 무기한 대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은행을 총괄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사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우한 지역 수입상과 거래하는 수출상의 신용장 네고 요청을 거부했다.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신용장 네고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권은 선적 서류 수취 방법을 변경하거나 수입상과 협의하라는 대안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특사배송업체(DHL, FEDEX 등)를 이용해 중국 우한으로 가는 수출매입 서류를 송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출상들은 중국 내 제3은행 혹은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타 은행으로 서류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사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총괄하는 기구인 만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장 네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타 시중은행들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해당 부서에 아직 관련 보고조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이런 애로사항도 피해 구제 대책을 실행할 때 검토하겠다”면서 “우선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중은행들도 이를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수입상은 자국 현지 은행에 담보를 걸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다. 이후 현지 은행이 수입상에게 열어준 신용장을 수출상의 거래 은행에도 보내주면, 수출상은 그 신용장 내용에 따라 화물을 선적해 수입상에게 보낸다.

이때 수출상은 선박회사로부터 선적했다는 증거인 BL(선하증권)을 받게 되는데, 수출상은 BL을 비롯한 선적 관련 서류와 신용장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 가서 신용장 네고, 즉 대금 지급을 요청한다. 거래 은행은 심사 후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서류를 수입상 현지 은행으로 보낸다. ▶10면에 계속

나경연 기자 contest@



한산한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신종 코로나 확산 공포가 산업계는 물론 문화 공간까지도 덮쳤다. 서울 강남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인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이 9일 휴일임에도 나들이객이 없어 한산하다.

연합뉴스

수출·내수 '빨간불'...韓 경제성장률 줄하향

英 캐피털 이코노믹스 2.5%→1.5%
JP모건도 2.3%서 2.2%로 낮춰
한국은행 27일 수정전망에 '축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국내 수출과 내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낮추고 있다. ▶관련기사 3·4·6·8·12·16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중전 2.2%에서 2.0%로 떨어뜨렸다. JP모건 역시 올해 성장률 전

망 2.3%에서 2.2%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27일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통해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년(2.0%) 대비 0.4%포인트(P) 상향 전망한 바 있다.

또 블룸버그가 집계한 IB와 경제연구기관 등의 올해 한국 수출 증가율 전망치도 2월 평균 2.1%로 전월(2.3%)보다 0.2%P 하락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0.5%까지 낮게 잡았다. 소시에테테네랄과 JP모건체이스가 각각 1.7%, 1.8%로 어렵게 전망했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 증가

율을 3.0%로 봤다. 투자 관련 전망도 한 달 새 하향조정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한국의 올해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월 2.0%에서 0.1%P 하락해 1.9%로 주저앉았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6일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유통, 자동차, 반도체·전자, 정유, 화학, 철강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신종 코로나의 확산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거시경제적 파급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광 관련 일부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광도훈 기자 soqood@

'4개 닷'에 걸린 위기의 쌍용차

스페셜 리포트

한국 자동차산업엔 오랜 믿음이 있다. '노사관계'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강력한 고정관념이다. 그러나 최근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차 산업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고도화된 기술력과 자본에 의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 ▶관련기사 5면

수년째 이어지는 쌍용차의 위기는 매년 심화하고 있다. 2016년 소형 SUV '티볼리'의 인기로 9년 만에 흑자를 맞았지만, 그때뿐이었다. 2017년 1분기부터 영업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까지

'10년 무파업' 노사 톨톨 뭉쳤지만 작년 영업손실 2819억...10년새 최대 '투자 부족·신차 부재' 어려움 가중 정부 결단 없으면 '옥쇄파업' 우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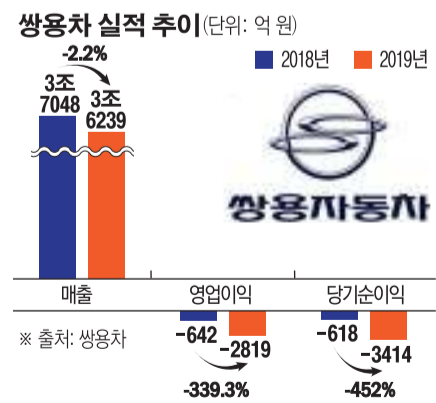
12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9일 차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281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2950억 원) 이후 10년 만의 최대 손실이다.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를 더하면 4114억 원에 달한다.

내수는 전년 대비 1.2% 줄었고 한때 7만 대를 넘었던 수출은 CKD(반조립수출)를 제외하고 2만5010대로 폭락 주저앉았다. 2010년 마힌드라에 인수된 후 가장 낮은 수출 실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생산중단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한 곳도 쌍용차였다.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특정 업체에 부품 공급을 몰아준 선택이 위기에 더 취약한 환경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쌍용차는 노조위원장이 대주주인 마힌드라를 찾아 투자를 요청할 정도로 노사관계가 탄탄하다. 사측은 임원



20%를 줄였고 급여도 삭감했다. 노조는 상여금 200%와 격려금을 반납했고 복지도 없애거나 줄였다. 10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도 마무리했다. 노사가 톨톨 뭉쳤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3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다. 위기감과 무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SUV의 명가로 통했

던 이 회사는 왜 부진의 늪에 빠져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을까.

쌍용차가 마주한 위기는 '4가지 부재'에서 비롯됐다. △SUV 이외의 차종 △다양한 수출시장 △대주주의 전폭적 투자 △신차·미래차다. 이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자본과 기술의 부재'다. SUV부문에서 옛 영광을 재현하는 데 집중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성장형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경영전략 오판이 오늘의 위기를 부른 셈이다.

쌍용차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5011명의 직원이 몸담고 있다. 정부의 결단 없인, 부활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쌍용차 직원들이 '상하이차 먹튀 논란' 때처럼 다시 한번 생계의 동아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옥쇄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창욱 기자 woogi@

〈前 코오롱그룹 회장〉

뷰티회사 창업... '63세 청년' 이웅열의 새로운 도전

‘아르텍스튜디오’ 설립

이웅열(사진)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개인 회사를 차렸다. 전격적인 사퇴와 창업 선언 이후 1년여 만이다. 뷰티 관련 업체로 코오롱그룹 내 화장품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웅열 전 회장은 작년 12월 ‘아르텍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다. 이 전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로 설립 자본금은 1억 원이다. 사무실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 있는 ICT타워에 마련했다.

아르텍스튜디오는 미용·생활용품 도소매 업종이다.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보면 △화장용 스펀지 및 퍼프 수출·수입업 △화장용 소품 제조 및 도·소매업 △화장용 소품 수출·수입업 △화장품 관련 컨설팅 용역사업 △화장용 스펀지 및 퍼프 개발업

23년 맡아온 코오롱 회장직 사퇴 창업 선언 1년여 만에 회사 설립 주력 사업 미용·생활용품 도소매 코오롱 화장품과 연계 가능성도

구 사업 △기타 화장품 관련 제조 및 수출입업 △기타 화장품 관련 서비스업 등 화장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2018년 11월 말 23년간 맡고 있던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를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당시 임직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코오롱 밖에서 펼쳐 보려 한다”며 창업 의지를 밝혔다. 62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던져진 갑작스러운 사퇴를 두



고 여러 말들이 나왔으나 재계는 대체로 ‘아름다운 퇴진’이라는 호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에 상속세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며 자진 사퇴의 의미가 퇴색했다. 차명어로 상속받은 주식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퇴진 3개월 만에 ‘인보사’ 사태도 터졌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으려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서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을 낳았다. 결국 국내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약처는 허가를 취소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고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아르텍스튜디오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사업 초기 단계로 이 전 회장이 임원을 맡고 있지는 않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로 퇴임한 백기훈 씨가 홀로 사내이사로 등기돼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앞서 창업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어 인보사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직접 경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코오롱그룹 내에서 사업 중인 화장품 브랜드와의 연계 가능성도 있다. 코오롱의 자체 화장품 브랜드로는 코오롱FnC의 ‘엠퀼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의 ‘위즈더마’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갤럭시 S20 언팩, 향후 10년 혁신의 청사진 제시”

노태문 삼성전자 신임 무선사업부장의 첫 메시지

지난달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새 사령탑에 앉은 노태문(사진) 신임 무선사업부장(사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향후 10년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사장은 9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갤럭시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노 사장은 “올해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으로 언팩에 참석하는 첫해”라며 “이번 언팩에서 향후 10년의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책임과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5G·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기 첨단기술 융합 주도 기기-사람 넘나드는 지능적 연결 사용자 최적화된 경험 제공할 것

이번 기고문은 노 사장의 무선사업부장 선임 이후 첫 외부 메시지다.

노 사장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부터 더 큰 화면과 S펜을 갖춘 ‘갤럭시 노트’, 2019년 새로운 폴더블 카테고리인 ‘갤럭시 폴드’까지, 지난 10년의



갤럭시 언팩 행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혁신을 정의할 만한 수많은 스마트폰의 개발과 혁신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은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의 융합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웨어러블, PC뿐 아니라, 다양하고 수많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러한 첨단 기술의 융합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사장은 “앞으로는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 경험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안전한 사용자 경험일 것이고, 이를 통해 기기와 사람,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넘나드는 더욱 지능적인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지능적인 연결을 위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고, 더 많은 사용자가 진정한 5G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요 통신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

노 사장은 “이번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S20’ 시리즈와 함께 새 클램셀(조개껍질) 디자인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을 발표한다. 노태문 사장은 직접 무대에 올라 신제품을 소개하며 정식 데뷔할 전망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S20 시리즈는 2016년 출시된 갤럭시S7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40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장애인고용 30년, 함께 하는 도약 1990-2020

☎ 1588-1519 www.kead.or.kr

車3사 내일부터 공장 순차 가동... 완전 정상화는 먼길

재가동 준비하는 산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와 중국산 부품 조달 중단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던 주요 기업이 이번 주 중국 및 국내 공장을 재가동한다.

다만 중국 현지 상황이 유동적이고 현지 부품공장의 100% 정상 재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은 춘제 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한다. 연휴 기간 가동률을 조절하거나 생산을 중단했던 이들은 본격적인 재가동을 앞둔 주말부터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상 없이 10일 조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엔타이(煙台)와 난징(南京) 모듈 공장가동을 중단했던 LG디스플레이도 10일 공장 가동을 재개한다.

LG화학의 난징 배터리 공장도 SK이노베이션의 창저우(滄州) 배터리 공장도 10일 가동을 다시 시작한다. LG화학 관계자는 "최소 인원으로 일부 재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가동률은 적정선을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잠복기와 격리 대상 근로자들을 고려하면 인력을 100% 투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뜻이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연휴 기간 중 외지를 다녀온 근로자를 상대로 '2주 자가격

중현지서 '하니스' 생산 재개 중국산 검수·검역 복잡해져 실제 투입까지는 2~3일 소요

삼성·LG디스플레이 중공장 10일 근로자 복귀 가동 재개 LG화학도 최소 인원 재가동

리' 조치를 내렸다. 격리 대상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100% 정상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완성차 메이커도 점진적으로 휴업을 마치고 조업 재개에 나선다.

연휴 끝 조업 재개를 앞두고 일부 협력사 현지공장이 하니스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부품공장에서 하니스를 보내면 이번 주 국내 완성차 공장이 차례로 이를 전달받아 생산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10일 국내 전체 공장이 문을 닫는 현대차는 11일부터 울산 2공장(팰리세이드·제네시스 GV80)을 시작으로 생산을 재개한다. 같은 날 기아차도 화성공장 가동을 시작한다. 주문이 밀린 K5 등을 먼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12일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다른 공장도 문을 다시 연다.

르노삼성에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공

기업	공장	조업 재개
삼성디스플레이	수저우·동관	10일
LG디스플레이	엔타이·난징	10일
LG화학	난징	10일
SK이노베이션	창저우	10일
현대·기아차	베이징·옌청	17일
현대차	울산2공장	11일
기아차	화성공장	11일
르노삼성	부산공장	17일
쌍용차	평택공장	13일

※ 출처: 각 사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부 부품 재고가 바닥나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이 7일 가동 중단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전체가 이날 휴업에 들어가면서 평소 울산공장 명촌정문으로 출몰하던 차량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장 가동을 중단한다. 본격적인 조업 재개는 내주 월요일인 17일부터 가능하다. 이 밖에 가장 먼저 공장 문을 닫았던 쌍용차도 13일부터는 재가동에 나선다.

중국 현지에서 하니스 부품 생산이 시작됐지만 국내 완성차 공장의 100% 정상 가

동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지 부품공장 정상 가동 △물류 채널 회복 △재가동에 따른 부품 검수 및 검역 등이 차례대로 해결돼야 한다.

특히 물류 채널 확보가 관건이다. 운항

중인 국적 항공사 중국 노선의 90% 이상이 문을 닫거나 운항 빈도수를 크게 줄였다. 해운산업도 중국 최대 내륙 컨테이너항만인 우한항이 폐쇄돼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육상 운송도 문제다. 우한은 물론 인근 도시 폐쇄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육상운송 체계 역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국내 사업장에 중국산 부품이 도착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 거쳐야 할 단계가 이전보다 복잡해졌고 추가 검수 과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중국산 부품의 경우 품목별로 검수는 물론 검역 과정이 추가됐다. 현지에서 부품생산을 재개해도 완성차 조립설비에 투입될 때까지 2.5~3.5일이 소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전자 등 생산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조업일수 며칠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시장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 사업 전략도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아이폰 생산공장 가동 또 연기

中 춘제 연휴 끝났지만 지방정부 허가 여부에 달려 폭스바겐 공장 다음주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연기됐던 중국 춘제 연휴가 9일로 끝나 많은 중국 기업이 10일부터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조업 재개 시기를 재연기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어 세계 공급망 정상화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세계 최대 전자기기 수탁제조서비스(EMS) 업체 흥하이정밀공업은 산하 폭스콘테크놀로지그룹이 운영하는 선전과 정저우 공장 2곳의 가동을 다시 연기하게 됐다고 CNBC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폭스콘의 선전 공장은 원래 10일에 조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정부의 위생 당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원 기숙사와 식당 통기성이 좋지 않아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 위험이 높으며 조업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폭스콘은 10일 재개 예정이던 허난성 정저우시에 있는 공장도 가동을 또 연기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현지 정부의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정저우 공장은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최대 조립 거점 이어서 공장 폐쇄가 장기화하면 아이폰의 출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독일 폭스바겐도 중국 일부 공장의 조업 재개 시기를 17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8일 발표했다. 원래 폭스바겐은 춘제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한 것 외에 직원들의 이동이 제한돼 이같이 결정했다.

폭스바겐은 2019년에 세계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423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다. 폭스바겐에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자 이익률도 가장 높은 시장이다. 중국 전체에서 30개가 넘는 차량과 엔진 공장을 갖고 있고, 95%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하루 자동차 생산 대수는 약 1만5000대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메이커 중에선 가장 많다.

한편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는 예정대로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첫 중국 공장이 있는 상하이시가 8일 테슬라의 생산 재개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덕분이다. 앞서 테슬라는 신종 코로나로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신형 '모델3' 출고가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일 주가가 17% 넘게 주저앉았다.

이외에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도 10일부터 조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장비업체 ZTE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부 소규모 지방정부에서는 기업들에 휴업 재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한되면서 춘제 때 고향에 갔던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못해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교통 당국에 따르면 춘제 휴가를 고향에서 보낸 사람들이 유턴하는 시기의 철도와 버스, 항공기 등의 여객 수는 4억 명 안팎으로 작년보다 70% 정도 밀릴 전망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롯데칠성음료

청정제주속취비법이 탄산음료를 만났습니다!

속취엔 개수깡

제주산 원료 가지 함유
(감귤, 녹차, 김, 달메, 모자반, 미역, 우뚝사리)

발명특허
속취해소원료
*허용번호: 710-1246985

162 ml

〈사흘간, 업계 추정〉

롯데백·면세점 500억 매출 손실... “명동도 80% 급감”

오프라인 매장 ‘초토화’

신세계·현대백 전국 25개 매장 매출 손실 감수 오늘 ‘방역 휴점’ “확진자 동선 발표 때마다 긴장” 마트·지역 소상공인들 냉가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백화점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부진,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소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잖아도 온라인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매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폐쇄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인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과 롯데면세점 명동점, 에비뉴엘, 영플라자 등은 7~9일 사흘간 문을 닫으면서 500억 원



9일 서울 중구 명동지하쇼핑센터가 휴일임에도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확진자가 묵었던 프레지던트 호텔도 6~16일 영업을 중단했다.

이미 롯데백화점은 2월 첫 주말(1~2일) 매출이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첫 주말(2019년 2월 9~10일) 매출과 비교해 11% 감소했고, 면세점과 건물을 함께 쓰는 명동 본점은 매출이 30%나 빠졌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12.6%

감소했고, 유커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본점 매출은 23.5% 급락했다.

10일에는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방역을 위해 계획에 없던 휴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전국 12개 점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과 미아점을 제외한 전국 13개 매장은 10일 하루 동안 문을 닫기로 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매출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형마트 역시 방문객 감소로 최근 매출이 평소 대비 최소 20~30% 이상 줄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의 방문으로 이마트는 군산점과 부천점에 이어 마포공덕점도 임시 휴업을 실시해 매출 일부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부천점의 경우 이마트 상위 점포 중 한 곳”이라며 “휴점에 따른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데다 재오픈 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내국인 소비뿐 아니라 관광객 급감에 따른 매출 감소까지 더해지고 있다.

1월 24~31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2300여 명이 줄어, 하루 11%에 달하는 1544명꼴로 감소했다. 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34.5%(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 경우 여행업, 호텔업, 면세점 등의 피해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카페 방문객이 감소하고, 명동과 남대문시장 매출은 80%, 광장시장 매출은 50~70%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인근 소상공인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15년 5월 말~6월 우리나라를 휩쓴 메르스 때문에 서비스업 생산 타격은 심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때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5월 0.7%, 6월 0.5% 감소했으며 도소매업 생산은 5월(-1.4%), 6월(-2.1%),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6월(-10.0%) 각각 줄어든 바 있다. 그해 6월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11.9% 빠졌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퍼지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이 발표될 때마다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며 “언제 어느 매장이 문을 닫을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더 두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과 소독에 신경 쓰는 것 말고는 달리 대응 방안이 없다”며 “갈수록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게 되면 매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일가족 3명 확진... 中 광둥성 다녀온 부부 감염, 시어머니는 ‘2차 감염’

〈26·27번〉

〈25번〉

25·27번 무증상 감염 아닌 듯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확진환자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가 2598명(누계) 신고됐다고 밝혔다. 추가 환자 3명을 포함해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683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다. 88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추가 확진된 25번 환자(73·여)는 6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에 내원해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 25번 환자는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후 지난달 31일 귀국한 아들(26번, 51·남)과 며느리(27번, 37·여·중국인)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7번 환자는 25번 환자의 증상 발현(6일)에 이를 앞선 4일부터 잔기침 증상을 보였으나 의사환자로는 분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2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26번 환자와 함께 확진 판정

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25·27번 환자의 증상이 발현된 시기로 미루어 ‘무증상 감염’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무증상기에 접촉한 것은 아니고, 며느리의 호흡기 증상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을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학회에서도 명확하게 무증상 시기에 감염이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없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 사례에선 중국에서 온 여성이 독일 체류 당시에 증상이 있었고 약을 복용했는데, 독일

조사팀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부연했다.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4번 환자(55·남)는 이날 퇴원했다. 지난달 27일 확진된 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증상이 호전되고 진단검사에서도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됐다.

한편,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전날 1420명에서 1698명으로 278명 늘었다. 격리대상자도 1090명에서 1163명으로 증가했다. 동선이 광범위했던 12번 환자(48·남)

와 태국을 다녀와 일본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16번 환자(42·여)의 접촉자가 각각 201명, 55명으로 추가 확인됐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16번 환자가 머물렀던 광주 21세기병원에서 입원·외래환자와 동행했던 분들, 방문안했던 분들을 더 확인했다”며 “12번 환자는 동선이 꽤 길었던 환자였고 그분의 접촉자들을 재분류했을 때 격리자로 분리하지 않았던 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추가로 격리자로 분류했던 분들이 반영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틈새’ 뚫다 ‘새 길’ 잃어... 내수·수출 毒 된 ‘SUV 편식’

쌍용차 발목 잡는 요인들

쌍용차는 자사를 ‘SUV의 명가’라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SUV가 인기를 끌기 전 무쏘, 코란도, 카이런, 픽업트럭 스포츠 모델 등 중대형 SUV를 연이어 내놓으며 얻은 ‘브랜드 가치’였다. 문제는 이 시장이 일종의 ‘니치마켓’ 즉, 틈새시장이었다는 점이다.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된 후 빠르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미래 차종으로 발을 뻗어야 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투자지연, 우유부단한 내부의사 결정 등으로 가성비 좋은 소형 SUV 티볼리의 성공은 오히려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쌍용차를 백책간두의 위기에 올려놓고 말았다.

◇독(毒)된 ‘SUV 올인’ 전략 = 2015년 쌍용차는 티볼리를 선보이며 국내 소형 SUV 시장의 문을 열었다. 1600만~2300만 원대의 가격대에 준수한 연비와 디자인, 첨단 안전사양으로 인기를 끌며 출시 이듬해인 2016년 5만6000대 넘게 판매됐다. 티볼리의 인기로 힘입어 쌍용차는 같은 해 9년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소형 SUV 시장의 가능성을 인정한 현대·기아차는 니로와 베뉴, 셀토스에 이르는 소형 제품군을 발 빠르게 선보였다. 결국 티볼리 판매량은 2017년 5만5280대에서 지난해 3만5428대로 줄었다. 한국지엠(GM)이 경쟁 차종인 트레일 블레이저를 출시한 지난달에는 티볼리 판매량이 1607대에 그쳤다. 티볼리 출시 이후 월 판매량이 2000대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내수시장에서 누려왔던 SUV 니치마켓 플레이어로서의 감성이 경쟁사들의 신차 출시로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티볼리 성공’ 안주하다 경쟁사에 밀려 신흥국 경기침체로 수출마저 급감 마힌드라 투자 지연·경영전략 실패 신차부재-판매부진-지금난 악순환

◇신흥국 수출 쏠림의 결과 = 쌍용차는 2014년까지 수출이 내수보다 많았다. 2011년에는 7만3630대를 수출하며 내수(3만8651대)의 두 배 이상을 해외에 팔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수출이 급감해 지난해 2만5010대로 떨어졌다.

원인은 수출 대상 국가의 경기 침체였다. 쌍용차의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이란, 브라질 등 신흥국이었다.

2013년 이후 이들 신흥국은 세계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안정을 겪으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쌍용차에는 직격탄이었다.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는 2013년 3만4000대 가량을 팔았지만 작년에는 4대에 불과했다. 다른 주요 수출국인 이란 역시 미국의 경제제재가 부활하며 수출길이 막혔다.

◇대주주 마힌드라의 투자 = 인도의 마힌드라는 2010년 5225억 원에 쌍용차를 인수한 뒤 지금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해왔다. 대주주 마힌드라의 투자 덕에 티볼리 개발을 이뤄내는 등 성과도 분명했다. 그런데도 투자액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쌍용차는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매년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있다. 2016년 1555억 원이던 연구개발비는 2018년 2016억 원으로 2년 만에 30% 늘었다. 현대·기아차에 비하면 적지만, 쌍용차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큰 지출이다.

쌍용차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19년 상반기



5.5%까지 올랐다. 현대·기아차는 이 비율이 2~3%다.

지난달 방한한 파란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지를 전달했지만 ‘산업은행의 지원’을 투자 조건으로 내걸었다. 2300억 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3분기 투자한 연구개발비(2510억 원)보다 적은 액수다. 쌍용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추가 투자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올해 신차 출시도 없다 = 쌍용차는 올해 내놓을 신차가 없다. 상품성 개선 모델의 출시 가능성만 나오는 상황이다. 2021년 출시 예정이던 신행 무쏘 개발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경영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향후 2~4년 내 새로운 RV 모델을 내놓겠다는 중장기 계

획안이 담겨있다. 대세인 전기차(EV)나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도 아직 출시하지 못했다. 국내 완성차 5사 중 친환경차가 없는 건 쌍용차가 유일하다.

내년에 코란도 기반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은 갖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창욱 기자 woogi@

쌍용차 경쟁력 제고 해법은

‘미래차’ 못 만들면 사실상 시한부 대주주 투자 결단·수출회복 관건

쌍용자동차의 부활은 결국 수출과 과감한 투자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사관계가 어느 회사보다 안정돼 있고 부활의 의지가 큰 만큼 투자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마힌드라 본사의 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란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쌍용차가 PBT(법인세 차감 전 이익)를 실현하려면 15만5000대 가량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내수시장에서 10만5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며 “대략 4만~4만2000대 수출 판매를 달성하면 PBT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10만 대 선에서 유지되는 내수는 그대로 두되, 2만 대 선까지 떨어진 수출을 5년 전 수준인 4만~5만 대까지 늘려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엔카 사장의 말처럼 쌍용차는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회사인 SNAM사와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SNAM은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을 수입하고 2021년부터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시작해 3만 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쌍용차는 과거 이란 등의 중동 시장에서 관철은 실적을 거둔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중동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리스크다. 쌍용차는 SNAM사와 2017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2020년부터 픽업 모델을 현지 조립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후 사우디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계약은 흐지부지됐다.

포드와 마힌드라의 협력 관계를 쌍용차가 활용하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마힌드라는 쌍용차를 포함해 이른바 ‘삼각 동맹’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가 보유한 미국 판매망을 활용해 쌍용차를 세계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쌍용차는 더 쉽게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마힌드라가 얼마나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친환경 신차를 출시하느냐도 관건이다.

차 업계에서는 이번에 쌍용차가 자체 회생하지 못하면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더는 다른 업체로의 피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마힌드라가 대응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분석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삼각 동맹이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동맹이 실현된다 해도 쌍용차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쌍용차는 사실상 시한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와 대주주가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OS

필승 코리아 편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이기게 만드는 일!

필승 코리아 편은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선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필승 코리아 편은 운용 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행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행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3537호 (2019.09.03 ~ 2020.09.02) ※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Class A: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펀드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운용회사: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KDI “최근 경기 부진 완화… 신종 코로나가 변수”

경제동향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됐으나 1월 말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이날 KDI 경제동향 2월호에서 “신종 코로나의 거시경제적 파급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생산·소매 판매·수출 증가세
코로나 여파 관광업 위축 전망
메르스 때 관광객 46% 급감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 우려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서비스업생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광공업생산이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고 제조업 출하 확대에 따라 재고율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또 “수요 측면에서도 12월 소매판매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 부진이 완화됐으며 1월 수출도 일평균 기준으로는 증가로 전환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KDI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주요 금융지표에 반영된 가운데, 관광과 관련된 일부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DI는 “신종 코로나의 전개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영향을 현 시점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며 “2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내국인의 외부활동 위축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됐던 2015년 6-8월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45.5%(월평균 46만4000명)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연평균 대비 0.8%포인트(P) 낮아졌다.

KDI는 “중국산 부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광공업생산도 일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관광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 KDI는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6-8월에도 면세점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KDI는 “수출은 일평균 기준으로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에 따른 대외 수요 위축이 수출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문 대통령, 인천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충북 진천을 방문,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은 이시종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신설 합당 제안 유승민 “총선 불출마”

“공천권·지분 요구 안 하겠다”
황교안 “文정권 함께 심판하자”



시했다. 한국당과의 합당을 통해 ‘개혁보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협치 중 협치’인 종로를 출마지로 선택한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던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승민(사진)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유한국당에 신설 합당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응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손을 잡고 보수 통합의 배수진을 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 의원의 ‘총선 불출마’ 결단으로 보수 통합이 ‘개혁보수’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한국당, 새보수당 중진 및 대표급 인사들의 불출마와 협치 출마 촉구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 통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단순히 합친다고 다가 아니다. ‘개혁보수’로 합쳐야 한다. 그 진정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따라서 불출마한다”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선 불출마’ 카드를 꺼낸 이유는 보수 통합 국면에서 앞서 그가 제시한 ‘보수 재건 3원칙’을 우선으로 세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며 ‘보수 재건 3원칙’을 제

을 실어줄 수 있던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다만 유 의원은 개혁 보수를 포함한 3원칙만 약속대로 지켜진다면, 총선을 앞둔 합당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공천권(지분)이나 당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유 의원의 결단에 대해 “자유우파 대통합을 위해서 참 어려운, 귀한 결단을 했다”고 높게 평가하며 “똥뽕 뭉쳐 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환영의 입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은 보수-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파괴하려는 세력의 싸움이다”며 “이 싸움의 선봉에 유승민 의원이 합류함으로써 우리는 큰 장수를 얻었다”고 적었다.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불출마 선언 환영한다”라며 “애국세력이 바라던 모습이 바로 이것, 힘든 결단을 내려줘서 고맙다. 보수통합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유 의원은 내리 4선을 한 대구 동구를 지역구를 15년 만에 떠나게 됐다. 김하늬 기자 honey@

넥스트칩 등 5개사 ‘신산업 진출’ 첫 승인

개정 기활법 따라 9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만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지원 대상이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으로 전면 확대된 후 첫 번째 승인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열린 제25차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5곳을 비롯해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기활법은 조선업 등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구조개편에 치중한 기존 기활법과 달리 신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

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가 예전보다 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의 성공률을 높이고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재편을 유형별로 보면 신산업 진출 기업 5개사, 공동사업재편 기업 2개사, 과잉공급 해소 기업 2개사다.

신산업 진출 분야의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앞서 열린 산업재편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원엔피와 영

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되면서 개정 기활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다.

이번에 승인된 9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상의 승인 기간(최대 5년) 신산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인 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과 세이언, 산업용지 등의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종로 빅매치’ 이낙연-황교안 표발 다지기

이 “용산~고양 삼승 신분당선 연장”
황 “젊음의 거리’ 찾아 정권 비판



황교안(사진 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으로 4·15 총선의 ‘빅매치’가 확정된 종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 대표가 동시에 나서며 현장 표심 잡기를 본격화했다.

이 전 총리는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춰 지역 팀방 결과를 종합해 총선 공약으로 키우는 방안인 반면, 황 대표는 위축된 경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종로를 ‘정권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사직동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4·15 총선을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출발로 삼고자 한다”면서 “다른 후보들과도 그것을 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바뀌고 싶다. 그러기 위해 교육, 보육, 주거환경, 산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교통이 원활한 종로로 개선하려 한다. 고양 삼승과 용산 구간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3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자마자 ‘광복’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종로에 국한하지 않은 지역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황 대표와 비전 경쟁을 예고했다. 4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창신동을 찾아 관련 민원을 들었다.

황 대표는 출마 선언 이틀 만에 현장을 찾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를 찾아 공실상가 비율을 살폈다. 이곳은 젠트리피케이션(도심 지역의 임대료 급등으로 나타나는 공동화 현상)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상권이 활기를 잃은 곳이다.

그는 “종로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다. 관광객도 줄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 빈집들이 많아진다”며 “종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공정경제’ 법령 시행… 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받나

상법·자본법 개정… 사익편취 근절·지배구조 개선 등 주목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5%룰)’를 완화했다. 5%룰은 투자자가 임원 선·해임 등 ‘경영권 영향 목적’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 5일 이내 보고·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에 한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위법행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지분 변동 시 시장에 월별 약식 보고토록 했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보고로 추종매매에 따른 수익률 하락 우려 등이 존재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한 회사(상장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3월부터 주주총회에 돌입하는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찾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발표한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의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고객과 함께하는 인생금융 파트너

Your Trusted Financial Partner for Life

—
삼성생명은
고객의 인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일상의 크고 작은 행복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은
고객의 마음을 잘 알기에
삼성생명은 고객의 인생 가까이에서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SAMSUNG

“감염병 못 막은 건 독재 때문”... ‘시진핑 체제’ 휘청

무역전쟁·홍콩 이어 ‘코로나 악재’ ‘리원량 사망’ 여론 애도서 분노로 중 지식인, 시진핑 정권 잇달아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발병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사태가 잦아들기는커녕 악화일로로 걸으면서 중국 내에서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명실공히 세계 2위 경제대국임에도 감염병 초기 대응에 실패해 사망자와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가뜩이나 둔화하는 경제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 홍콩 민주화 사태 등으로 쌓인 사람들의 불만이 슬슬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당국이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의 존재를 공표한 건 작년 12월 31일. 이후 감염자는 급속도로 늘어 9일 0시 기준 중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3만7198명, 사망자는 811명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시 전체를 격리, 엄청난 의료 인력과 병력을 동원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바이러스와의 인민전쟁’을 선포, 정부 명령에 불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처벌을 약속했다.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처한 궁극적인



문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고 월 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가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끝내 이 병에 걸려 숨진 의사 리원량이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식인들도 목숨을 내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 최고 명문대학인 칭화대 법학 교수인 쉬장룬은 최근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려 시진핑 정권에 일침을 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며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중국학을 연구하는 사오치양 연구원은 “지금 중국의 사태는 단순히 공중 보건 위기가 아니다”라며 “시 주석은 2012년 취임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 홍콩 민주주의 사태를 다루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차에, 신종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의 지도력은 물론 대중의 지지까지 무너지면서 체제도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쉬장룬 교수는 “시진핑을 둘러싼 신화가 산산조각 났다”고 했다. ‘인민전쟁(people’s war)’이란 말은 ‘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이 가장 먼저 쓴 말로,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고자 그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했지만, 그의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는 중국인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WSJ은 꼬집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20배 웃돈 붙어도... “우리에게 파시오!” 세계 각국 ‘마스크 확보 전쟁’

중 생산 줄었는데 수요 급증 전세계 품귀에 물량 확보 비상 아이폰 공장서 마스크 생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전 세계가 떠안은 ‘마스크 확보 전쟁’을 벌이게 됐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신종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만성적인 마스크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검사키트 등의 수요는 평상시 대비 최대 100배, 가격은 최대 20배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 산업계, 의료 시장이 비상에 걸렸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 최대 마스크 생산국인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지 공장서 생산된 마스크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등관시 지방정부 역시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 ‘마크라이트’ 소유의 현지 공장서 만드는 모든 마스크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마스크 중 일부는 통상적으로 흡디포, 카디널헬스 등 미국 의료가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보내졌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마스

크업체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주요 도시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이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아서 생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마스크 품귀 현상’이 국제적 이슈인 만큼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메디콤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와 프랑스 공장의 생산량을 확대했다. 연간 1억7000만 개의 마스크를 만드는 프랑스 공장은 5억 개의 주문을 받았다.

때안인 마스크 대란에 행동에 나선 것은 중국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다. 인도와 대만은 ‘마스크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태국 정부도 최근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가격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500장 이상의 마스크를 수출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직접 마스크 생산에 나서는 기업도 나타났다. 폭스콘은 일부 생산 라인을 돌려 의료용 마스크를 만든다. 5일부터 시제품 생산에 돌입한 이 공장은 이달 말까지 하루 200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태국서 군인이 묻지마 총기 난사 태국 동북부 나콘랏차시마시에서 9일(현지시간) 새벽 보안군이 소풍물에 숨어 있는 총기난사 용의자를 추격하며 동태를 살피고 있다. 전날 오후 나콘랏차시마시 인근 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총기를 탈취해 부대 안과 쇼핑몰 등에서 난사해 20명 이상이 숨졌다. 용의자는 보안군에 의해 17시간 만에 사살됐다. 나콘랏차시마/로이터연합뉴스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왼쪽)과 고든 손들런드 EU 주재 미국 대사.



AFP-AP연합뉴스

탄핵 모면한 트럼프의 ‘뒤끝’

불리한 증언 나선 인사들 속속 해임 펠로시 의장-롬니 의원엔 비난 공세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수가 시작됐다.

미국 상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자마자 트럼프가 그동안 하원의 탄핵 조사와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사들을 축출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고든 손들런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이 현장에서 해임됐다. 빈드먼 중령의 쌍둥이 형제 예브게니도 현장에서 잘렸다.

손들런드는 성명에서 “트럼프가 나를 신속하게 소환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빈드먼의 대리인도 “우크라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빈드먼도 직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7일 백악관에서 빈드먼에 대해 “나는 그를 평가하지 않는다. (처우를 둘러싸고) 언젠가 판단이 내려져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인사 조치된 사람들은 2019년

11월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들이다.

손들런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대가로 트럼프가 정적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빈드먼은 작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직접 들은 당국자 중 처음으로 하원에서 증언하고,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보복 인사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더욱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5일 상원의 탄핵 심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밋 롬니 상원의원을 향해서도 분노의 트윗을 날렸다.

그는 6일 트위터에 롬니 의원을 “실패한 대선 후보”라고 조롱하며 2012년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에 패한 점을 상기시켰다.

이외에 탄핵 조사를 이끌었던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는 “심보가 나쁘다”고 비꼬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신종 코로나’에 세계 성장률 전망치 속속 낮춰

무디스·JP모건 등 0.2~0.3%p 내려... ‘마이너스 성장’ 우려도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5%로 낮춰 잡았다. 이번 전망치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국 경제가 입을 손실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할 것으로 전제해 수치를 잡았다. 마크 젠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종 코로나는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는 잠재 성장률(2.8%)을 밑도는 상황이 발생,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0.3%포인트 내렸다. 앞서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시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1분기 세계 경제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7일 리포트 통해 “신종 코로나가 43분기 계속된 세계의 성장을 멈춘다”며,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1~3월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기존 예측보다 280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국제 금융기구들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받을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달 초 “신종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단기적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과 공급망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여행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더워지는 지구 방치하면 ‘세계 GDP 절반’ 손실”

눈앞으로 다가온 ‘그린스완’

지난달 끝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다보스포럼)의 최대 이슈는 단연 ‘기후변화 위기’였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경제 포럼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 스포트라이트는 기후변화에 쏠렸다. 여기에는 56세 차이 ‘양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만남이 관심을 끈 탓도 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더는 환경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WEF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WEF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 세계 GDP 절반 이상인 약 44조 달러(약 5경2470조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손실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건설(4조 달러)과 농업(2조5000억 달러), 음식·음료(1조4000억 달러) 등 3대 산업이 기후변화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산업은 산림과 해양에서 자원을 직접 추출하거나 건강한 토양과 깨끗한 물, 안정적 기후 등 생태계 상황과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GDP의 15%(13조 달러)에 해당

WEF ‘기후변화 위기’ 분석 “44조 달러 자연손실에 노출” 건설·농업·식음료 직접 타격

자원 부족→생산 감소 연결 가격 변동 초래 금융위기로 국제결제銀 ‘그린스완’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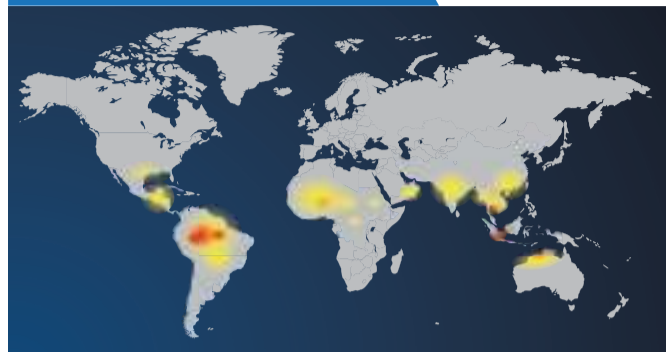
하는 산업들이 자연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37%(31조 달러)는 ‘적당하게(Moderately)’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역시 최근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그린스완’이라고 칭했다. 극히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는 ‘블랙 스완’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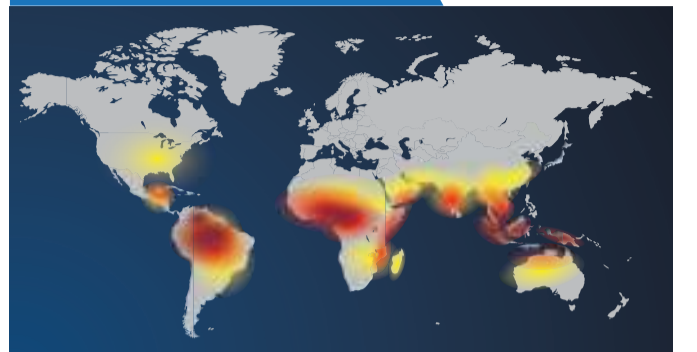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충격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농산물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압력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단기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러한 단기적 물가 압박 이외에도 기후변화는 자원 부족, 생산성 감소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시나리오별 지구 평균 온도 변화

온실가스를 당장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 출처: 국제결제은행(BIS) ‘그린스완(The green swan)’ 보고서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블랙스완과는 달리, 그린스완은 적어도 안젠가는 기후변화 위험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린스완은 인류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기후변화 위기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WSJ은 “기후 위기는 잠재적으로 막

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와 유사하다”며 “이미 기후위기는 기업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며나면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미래라기에 ‘기후변화’는 어느새 인류의 피부에 와닿고 있다. 이미 지구 환경은 인류를 향해 강력한 ‘적색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40년간 극심한 기후변화 사례가 4배나 증가했다. 2019년은 세계기상기

구(WMO)가 기록을 시작한 이후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특히 WMO는 “작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높았다”며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한도에 다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WMO는 이산화탄소 등 2018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온실가스 증가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MS “2030년 탄소 네거티브” 선언

10억 달러 ‘기후 혁신 펀드’ 조성 탄소 제거 기술 등 개발 지원 아마존·스타벅스도 감축 동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레이먼드 MS 본사에서 ‘탄소 네거티브’ 달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기후변화 위기’가 경제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계적 유수의 기업들 역시 발 벗고 대응하고 있다. 이미 최고의 이슈가 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인지한 데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해 세계적인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선도에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MS)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회사가 배출한 탄소보다 더 많은 양의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해 실질적 배출 총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2050년까지는 1975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배출한 탄소를 모두 없애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앞서 MS는 2012년 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0)’를 뜻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 바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MS는 10억 달러를 투자, ‘기후 혁신 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탄소 제거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직접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사무실과 공장 등을 100% 재생에너지로 돌리는 한편, 2030년까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화한다는 계획이다.

MS의 경쟁 기업인 아마존 역시 작년 9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하는 한편, 2030년까지 100% 재생 가

능한 전기로만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프로젝트 ‘기후 서약’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송용 전기차 10만 대를 도입,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다. 세계적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도 2030년까지 물 사용량, 쓰레기를 비롯해 탄소 발생을 절반가량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투자전략을 결정하는 데 주요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석탄 생산기업 등 환경의 지속성과 관련해 높은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발을 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뉴욕타임스(NYT)는 “블랙록은 7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투자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기업들의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직구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名家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기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번호:190705-64 m.hanaw.com | 1588-3111

하나금융투자

지주사 '역대급 실적'에도 웃지 못한 카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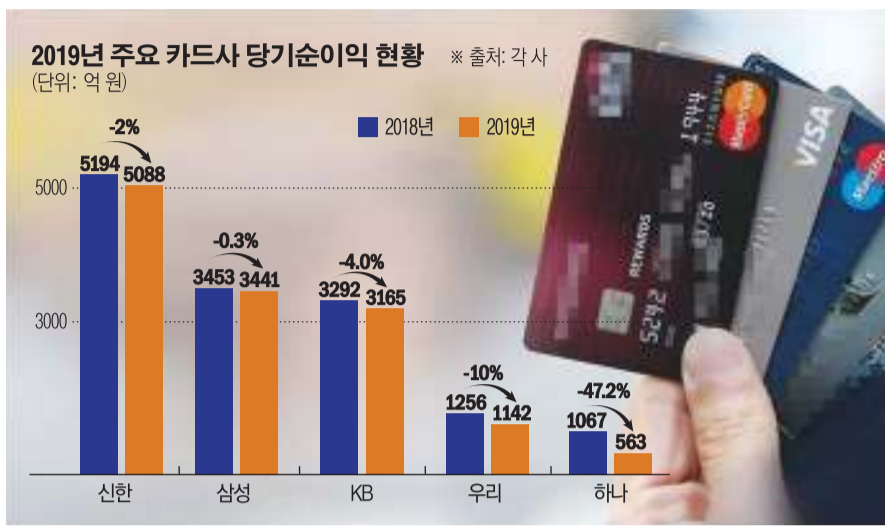
기업銀 "중소 설비투자 지원" 2조 규모 '붐업 프로그램'

수수료 감소에 수익성 '뒤틀림' 중·소형사 실적 절반으로 줄어 신종 코로나까지 업황 악재로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지만, 카드 계열사의 수익성은 뒤틀림을 겪었다. 손익 증가는 고사하고 2018년 실적 유지만 해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상황이다. 카드사 주 수입원인 카드 수수료 이익 감소가 손익 악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인 카드사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신한카드 당기순이익이 5088억 원으로 2018년 5194억 원보다 2%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익은 2조9535억 원으로 2018년 2조9609억 원보다 0.3% 감소했다.

반면, 할부금융과 리스 수익은 각각 1348억 원과 18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와 48.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 이후 카드 수수료 수입이 줄자 할부금융과 리스 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만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수익은 2조1170억 원으로 2018년 2조1700억 원보다 2.5% 줄었다. 가맹점수수료율은 2016년 이후 평균 1.5%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1.42%로 인하됐다.

다른 대형사도 실적 유지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해 KB국민카드 당기순이익은 3165억 원으로 2018년 3292억 원보다 4% 감소했다. 국민카드는 2018년 10.9% 순이익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한 해 만에 순이익 감소

세로 돌아섰다. 삼성카드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에도 2018년과 비슷한 실적을 냈다. 삼성카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441억 원으로 2018년 3453억 원 대비 0.3% 줄었다. 지난해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 제휴 종료와 수수료 인하 여파 등 악재가 많았지만, 모집 조직 효율화와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현금서비스와 대환론 비중을 줄이고,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할부·리스 사업을

2018년 13.9%에서 지난해 7.8%로 절반 가까이 줄인 것도 주효했다.

중·소형사는 카드 업황 악화 직격탄을 맞았다. 하나카드는 당기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하나카드 당기순이익이 563억 원으로 2018년 1067억 원 대비 47.2% 감소했다. 중·소 카드사로 분류되는 하나카드는 전체 수익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이 크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은 8061억 원으로 2018년 8301억 원보다 2.9% 줄었다. 수수료 수입 감소분 240억 원이 고스란히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카드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 1142억 원을 기록해 2018년 1265억 원보다 약 10% 감소했다.

올해도 카드사 실적 역성장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주요 금융사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경기하강 우려로 실적 목표치를 낮춰 잡는 등 '경기 비관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카드사만 업황이 안 좋아 실적 유지에 급급했다"며 "당장 신종 코로나 등 악재로 올해도 순이익 규모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IBK기업은행은 중·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진행되는 신규 설비투자에 최저 1.5% 수준의 특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금리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25년부터는 해당 시점의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중·중견기업으로 자금 용도가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시설투자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소재·부품·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중 올해 내 발생하는 신·증설 시설투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지연 기자 sij@

시중銀 '신용장 네고' 거부

▶1면서 계속

모든 서류를 받은 수입상은 서류와 선박의 화물을 교환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서류가 오가는 동안 선박이 먼저 항구에 도착해 대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은행들의 신용장 네고 거부로 수출상들은 신용장 혹은 계약서상의 배송지역이나 수취 방법 등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출서류 배송지 등 신용장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미결제 부도 가능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당국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 수출기업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금지연이자 면제, 부도유예기간 연장 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이미 선적을 마치고 신용장 네고를 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옥동 행장 "손익보다 고객 만족... 모든 업무의 기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7일 개최된 '2020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중심 경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銀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선을 넘는 도전' 구체적 방안 제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에는 고객이 있어야 하고, 영업 전략 추진에 앞서 소비자보호, 준법, 내부통제기 선행돼야 한다"며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진 행장은 7일 본사에서 열린 '2020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은행업은 고객의 니즈에서 출발해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성립된다"면서 "손익이 기준

이 되는 과거의 리딩뱅크가 아닌 고객의 믿음을 받는 일류 신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행장은 이런 고객 중심 전략을 위해 올해 실적 목표를 작년보다 낮게 잡았다. 동시에 서울 점포 5곳을 고객 중심 영업점으로 명명하고 40대 지점장을 임명해 영업보다는 고객 만족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객 중심 전략의 구체적 방법으로 '선을 넘는 도전'을 제시하며 △'과거의 선'을 넘어 익숙함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갈망하며 도전 △'세대의 선'을 넘어

직원 간 공감과 포용으로 진정한 원팀 되기 △'경쟁의 선'을 넘어 내부에 갇혀 있던 시선을 고객과 외부의 경쟁자로 돌리기 등을 설명했다.

진 행장은 경영전략회의 말미 볼슬레이를 언급하며 "4명의 선수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최상의 기록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앞에서 방향을 잡는 파일럿, 여기 계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나가 된 신한으로 고객을 향해 나아가는 2020년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니경연 기자 conte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0. 02

출생 이래 가슴을 뭉치는 시를 쓰는 유서깊은 시인
다란인생은 영예로운 편지들이 남아있는 제국의 인생일
꿈을 찾아 한민오우 온 가수 출신 연극배우 조두연

두 번째 전성기 지금부터 최성수와 동행하다

개우내 발인 피로 프러미엄 호텔 스키에서 즐겨
몽 노아생의 중앙세 놀고 친구들의 한우에 대해

문학을 사랑한 공수현, 김민서지 인생의 아름다움 4지점

위장적 라이프
Super Rich

COVERSTORY 슈퍼리치, 그들만의 시크릿 라이프

PART1. 시대를 반영하는 부자 프레임 - 보일 듯 말 듯 부자들의 재산 관리
PART2. 부자들도 하는 똑같은 고민 - 그들은 모두 갖진 못했다
PART3. 슈퍼리치의 현명한 소비 - 소비하기 전에 가치를 묻는다
PART4. 취미에 취하다 - 부자들의 일석이조 효과
PART5. 가보고 싶은 그들의 아지트 - 부호들의 핫플레이스
PART6. 워너 해브(Wanna Have) - 슈퍼리치의 정장엔 예술이 있다
PART7. 똑똑한 부자들의 마음가짐 - 매스컴을 통해 본 슈퍼리치의 삶과 철학

특별이슈
세상의 모든 참음을 삼킬 듯이

귀촌
'마나리 아줌마' 옥금 씨, 신바람 났대
그녀가 들려주는 여기의 돈도 내용도 화창하다. 풀 뜬 개, 수리처럼 밟다. 전공은 마나리 농사. 천초하기로 개나리에 밭먹을 마나리와 자신이 막 달았단다. 마나리의 역전 생경력, 그걸 집어 자신의 정신적 초심으로 여기는 거다. 마나리의 초목처럼 싱그러운 시절은 아쉽게도 이미 끝에서 떠났다. 그러나 이국금보다 씨가 누리는 귀농생활은 배어낸 자리에 다시 씌어 놓는 마나리처럼 상심하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연극배우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공처럼 사라졌던 '죽풍' 정유경"

"마지막 인생은 멋지게 살 겁니다"
영화배우 한자밀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볼을 기다리는 남자 최성수,
"열일사랑"으로 인생을 부른다

Living & Home 2020 트렌드 컬러 블루로 물들이다

세계적인 색채연구소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는 '블러시블루(classic blue)'다. 이에 발맞춰 리빙 업계에서도 다양한 블루 아이템을 내놓고 있다. 자칫 여름 컬러로 여겨지던 무거운 블루 톤은 중추한 멋을 내고, 코발트블루 계열은 인테리어에 모던함을 더한다.

향광해 길림 조선시대 선조들이 찾았던 불멸의 맛 '복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마음껏 물어낸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자책도 기대한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건강 팔방미인 케일 활용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김민웅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 은퇴와 맞물린 노후 준비 해법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뱀켓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뿜친 '신종 코로나'

“中공장 언제 또 닫을지 몰라” 생산기지 다변화 목소리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車
중국산 소재부품 수입비중 30%

생산 멈추면 국내 기업 큰 타격
아세안 등 글로벌 공급선 확대
공장 가동 이어갈 '플랜B' 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에 생산 거점이나 주요 부품 조달처를 둔 전 세계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생산기지 및 부품공급선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소재·부품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 달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현대·기아차 등 국내 주요 그룹은 주요 제품(부품) 생산라인을 대부분 중국에 두고 있다. 제품군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모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쑤저우에 가전과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갖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쑤저우와 동관, 텐진 지역에 4개의 OLED 모듈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SDI도 우시·시안·텐진에 3개의 공장이 있다.

LG화학은 난징 배터리 공장, 광저우 석유화학 공장이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엔타이 LCD 모듈 공장과 광저우에 올레드 패널 공장을 갖고 있다.

또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갖췄다. SK종합화학은 중국 시노펙과 합작해 설립한 중한석화가 운영하는 우



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외출 금지령'이 내려져 텅 빈 텐진 시내.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텐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정유공장이 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Ningbo 공장, 큐셀부문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치둥 공장이 있다. 첨단소재 부문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충칭이 생산 거점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는 베이징(2-3공장), 장저우(4공장), 충칭(5공장) 기지를 운영 중이다. 기아차는 연청에 2-3공장이 있다. 쉑쉑에는 쌍용차 공장이 있다.

현대모비스는 베이징, 강소, 장저우, 충칭, 상하이, 우시, 텐진 등 7개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산둥성, 장쑤성, 베이징에 생산 라인이 있다.

또 금호타이어는 난징, 창천, 텐진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는 칭다오 공장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충칭, 저장, 장쑤성에 생산 라인을 뒀다.

포스코는 텐진 코일센터와 포크코차이나(중국 사업 총괄), 스테인리스 제철소 장가항불수강,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청도포항불수강 등 4개 생산법인과 21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은 엔타이에 굴착기 생산라인이 있다. 삼성중공업은 Ningbo, 영성시 등 2곳에 블록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엔타이시에 블록 공장이 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인 청도 현대기계가 칭다오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굴착기 부품을 가공 조립 생산한다.

10일 이후 한국기업 생산공장들이 재가동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에 따라 지속 가동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휴가 복귀자에 대한 14일간 추가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소재부품 종합정보망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소재·부품 수입액은 520억8000만 달러(62조1574억 원)로 전년보다 5.6% 감소했지만, 전체 소재·부품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에 달한다.

특히 노동집약 제품인 접합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자동차·항공기·선박용) 수입액 19억7600만 달

러 중 중국산 수입액은 17억1300만 달러(2조444억 원)로 전체의 86.7%에 이르렀다.

대기업 중 일부는 생산거점 다변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2018년과 2019년 텐진과 후이저우 공장을 각각 철수해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시켜 이번 사태의 피해를 면했다. 가전업계 역시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은 적다.

재계 관계자는 “원가경쟁력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의존도를 단기에 급격히 낮추긴 힘들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향후 최소한 공장 가동 중단을 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선 다변화 정책을 각 기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김유진 기자 eugene@
한영대 기자 yeongdai@
유창욱 기자 woogi@

韓中 하늘길 막히나
99개 → 9개로 줄어

국내 항공사 100% 폐쇄 우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된 지 2개월 만에 국적사들이 운항 중인 중국 노선 90% 이상의 문을 닫거나 운항 빈도수를 확 줄였다.

중국 항공사들 역시 한국을 오가는 모든 노선에 대한 비운항 및 감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일주일 내에 노선 감축률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100% 폐쇄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우려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항공사가 운항 중인 중국(본토 기준) 노선 총 99개 중 비운항 또는 감축 운항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운항 중인 노선은 9개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매일 한국과 중국을 오갔던 노선들이 상당수 멈추거나 운항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한항공은 전체 중국 노선 30개 중 김포-베이징, 김포-상하이 2개 노선만 현재 유지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26개 중국 노선 중 김포-상하이, 인천-하얼빈, 인천-웨이하이, 인천-연청, 부산-선양 등 5개 노선만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제주항공을 제외하고는 중국 노선 전체 스케줄을 비운항 또는 감편으로 조정했다. 제주항공은 전체 17개 중국 노선 중 인천-칭다오, 인천-자무쓰, 인천-엔지, 인천-하얼빈 4개 노선만 정상적으로 운항 중이다.

국적사의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중국 항공사들 역시 한국을 오가는 중국 하늘길을 점차적으로 폐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국 항공사들로부터 노선 비운항 및 감편 신청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08@

삼성, 조업 피해 협력사에 2.6조 지원

삼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삼성은 조업 중단, 부품 조달 등으로 애로를 겪는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등이다.

삼성은 상생펀드와 물대지원펀드 등 상생 프로그램과 연계해 1조 원의 운영 자금을 무이자·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1조6000억 원 규모의 2월 물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협력회사가 긴급 자재 공급을 위해 항공 배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물류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협력회사가 부품 조달을 위해 원부자재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경우에는 부품 승인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또한 협력회사가 원활히 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물류 업체와 통관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물류 이외에도 우회 및 대체 경로를 개발하고 제안해 준다.

삼성전자는 중국 정부의 지침, 중국 내 물류 및 통관 현황 등 중국 관련 정보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위생, 방역, 확산 방지 수칙 등을 담은 행동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중국 진출 협력회사에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도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또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협력회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삼성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협력회사에 대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정의선, 美 주지사들 앞에서 ‘수소차’ 공기정화 시연

전미주지사협회 리셉션 참석
현대기아차 친환경 혁신 알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저에서 개최된 전미 주지사협회 리셉션에 참석해 그룹의 미래차 사업과 모빌리티 혁신을 알렸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 주최로 처음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전미 주지사협회 동계회의 리셉션에는 전미 주지사협회 의장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주지사 30여 명을 포함해 140여 명이 함께했다.

‘전미 주지사협회 회의’는 미국 50개 주와 5개 자치령 주지사들이 매년 두 차례(동계/하계) 모여 주 정부 간 협력과 정책 이슈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초청된다.

이번 행사에 초청받은 정 수석부회장은 한국 기업인을 대표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는 주지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가 공유한 가치에서 비롯된 우정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국의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주미 한국대사 관저 입구에서 넥소의 공기정화 기능 시연과 함께 수소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을 소개하며 미 주지사들에게 넥소에 탑재된 세계적 기술과 수소에너지 기반의 미래 수소 사회 비전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부회장은 주지사들과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 UAM(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공기정화 시연은 넥소의 공기 흡입구에 연결된 투명 비닐 풍선 안의 오염된 공기

가 차량 내 3단계 공기정화 시스템을 거쳐 청정 공기로 바뀐 뒤 배기구에 연결된 투명 비닐 풍선 안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지사들은 넥소의 공기정화 원리와 효과에 대해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수소 사회 방향성과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보급 확대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엔진과 발전기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커민스(Cummins)사와 ‘북미 상용차 시장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들이 수소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동계회의 리셉션에서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혁신을 밝히고 있다. 정 부회장은 이날 30여 명의 주지사들과 △미래 수소사회 △모빌리티 혁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 현대차

<제네시스>

<폭스바겐>

가격·연비 탁월한 'GV80'에 도전장 낸 '투아렉'

**럭셔리 SUV 시장 후끈
폭스바겐, 3세대 모델 출시
고급스러운 실내·파워 비슷**

플래그십 SUV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이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코리아가 이에 대적할 신형 3세대 '투아렉'을 선보이면서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투아렉은 폭스바겐 최초의 럭셔리 SUV로 2002년 출시 이후 17년 만에 누적 생산량 100만 대를 돌파한 '밀리언셀러'다.

슈테판 크랍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6일 열린 출시 행사에서 "GV80도 좋은 차지만, 그보다 투아렉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내 경쟁 차종으로 제네시스 GV80을 꼽은 것이다.

투아렉의 외관은 크롬과 LED 라이트 시스템을 결합해 웅장하면서도 정제된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GV80 역시 '역동적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방향성을 담아내며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GV80		투아렉	
1월 15일	출시일	2월 6일	
4945 x 1975 x 1715mm	크기(길이x너비x높이)	4880 x 1985 x 1700mm	
3.0디젤	엔진	3.0디젤	
278마력	최고출력	286마력	
60.0kg·m	최대토크	61.2kgf·m	
11.8km/L	연비	10.3km/L	
6580만~8900만 원	가격	8890만~1억9000만 원	
2.5·3.5 가솔린 및 전기차	출시 예정 모델	4.0디젤	

두 모델 모두 특히 실내에 공을 들였다. '이노비전 콕핏'으로 이름 붙인 투아렉의 실내 모니터는 12.3인치 계기판과 1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로 구성했다. 물리적인 버튼을 디스플레이 작동 방식으로 바꿔 번잡함을 없앴다. GV80도 14.5인치 디스플레이를 넣고 다이얼 방식의 기어노브를 심어 넣는 등 편의 장비를 가득 채웠다.

차체 크기는 두 차종이 비슷하다. 다만 GV80의 길이(전장)가 4945mm로 투아렉

(4880mm)보다 65mm 더 길다.

투아렉과 GV80 모두 현재 출시된 차종은 3.0 디젤 엔진을 얹고 있다. 투아렉은 V6 3.0리터 디젤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61.2kg·m의 힘을 낸다. GV80은 V형 대신 직렬 6기통 3.0리터 디젤 엔진을 얹었다. 최고출력 278마력, 최대토크 60.0kg·m으로 투아렉과 유사한 힘을 낸다.

폭스바겐은 V6 엔진을 고수 중이고, 제

네시스는 새로 개발한 직렬 6기통 엔진을 얹었다. 벤츠와 BMW 역시 최근 V6 엔진을 버리고 직렬 6기통으로 회귀 중이다. 연비는 GV80이 조금 더 우수하다. 1리터당 복합연비가 투아렉은 10.3km이며, GV80은 11.8km다.

두 차종 모두 3.0 디젤 모델로 출시됐지만 향후 다양한 엔진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투아렉은 올해 2분기 중 V8 4.0리터 엔진을 얹은 디젤 모델을 선보인다. 최

고출력 421마력과 91.8kg·m에 달하는 최대토크로 동급 최고 수준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보유했다. GV80은 추후 가솔린 직렬 4기통 2.5 가솔린 터보·V6 3.5 가솔린 터보 등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라인업까지 갖춘다. 소비자의 선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다.

가격 경쟁력은 GV80이 더 낫다. GV80은 시작 가격이 6580만 원이지만 옵션을 모두 더하면 9000만 원 가까이 올라간다. 투아렉은 가격대가 8890만 원부터 1억9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GV80 풀옵션 가격이 투아렉 기본 트림과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GV80의 일반적인 가격대가 7000만 원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W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인기 높은 옵션을 더한 가격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GV80을 생산하는 울산 2공장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다림을 얼마나 잡아둘 수 있을지가 GV80 판매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창욱 기자 woogi@

SK루브리컨츠, 아세안 윤활유 시장 진출

베트남 1위 업체 지분 49% 인수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사업 자회사가 베트남 최대 민영 윤활유 업체의 지분 절반을 인수하며 아세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K루브리컨츠가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외에 합작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의 윤활유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이노베이션은 7일 자회사 SK루브리컨츠가 베트남 최대 민영 윤활유 업체인 Mekong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Mekong은 2018년 기준 베트남 윤활유 시장 점유율 6.3%를 확보하고 있으며, 2개 탱크터미널, 윤활유 제조 공장 및 물류센터, 베트남 전역에 12개 유통·판매지사 등 7개 윤활유 사업 관계사가 있다. 향후 윤활유 사업 확대를 위해 유통·판매 회사를 Mekong 자회사로 통합할 계획도 갖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Mekong이 전국적 판매망을 중심으로 고급 윤활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해 왔고, SK루브리컨츠가 수출 중심의 성장모델을 혁신해 안정적 공

급망을 갖추는 BM(Business Model) 혁신을 추진해 양사의 이해가 맞아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SK루브리컨츠가 수출하는 윤활유 제품을 판매하고, SK루브리컨츠가 수출하는 윤활기유를 Mekong이 제조·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저장 시설 확대, 노후 설비 교체, 판매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등 기존 인프라를 개선해 베트남뿐 아니라 아세안 전역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SK루브리컨츠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시장에 주목해 글로벌 파트너링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번 지분 인수로 SK루브리컨츠는 단숨에 베트남 전역에 생산, 저장, 유통, 판매 등을 아우르는 윤활유 사업 밸류 체인을 구축하게 됐다.

또 이를 통해 아세안 윤활유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발판을 놓았다. 이미 SK루브리컨츠는 일본 JX에너지,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스페인 랩솔 등 유수의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울산, 인도네시아, 스페인에서 합작법인을 운영 중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LG그램, 美 컨슈머리포트 '배터리 최강 노트북'

LG전자 노트북 'LG 그램' (사진)이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지가 꼽은 가장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갖춘 노트북에 선정됐다.

9일 미국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LG 그램은 최근 출시된 노트북 가운데 배터리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가 출시한 13인치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 13'은 웹서핑 환경에서 16.25시간을, 동영상 재생에서 11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리포트는 "LG 그램의 무게가 약 2.1파운드(약 997g)에 불과해 동급 크기 노트북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경쟁 대상이 된 제품보다 두 배가량 큰 저장공간이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LG 그램 13인치 외에



도 HP '스펙터폴리오(spectre Folio)', 구글 '픽셀북 고(Pixelbook Go)', 애플 '맥북프로(MacBook Pro)',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3(Surface Laptop 3)' 등을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갖춘 노트북으로 선정했다.

LG 그램은 17인치와 14인치 노트북 전체 성능 평가에서도 각각 평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통 수장들 '코로나 포비아' 뚫고 MWC 간다

구현모 KT 사장 내정자
MWC서 국제무대 데뷔전
박정호 사장·하현희 부회장
당초 계획대로 일정 진행
부스 줄이고 참가 직원 최소화
"행사 취소되지 않는 한..." 의지



구현모 KT 사장 내정자 박정호 SKT 사장 하현희 LG U+ 부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에도 이달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0'에 국내 이동통신 3사 CEO들은 대부분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MWC 2020'과 관련해 이통 3사는 이미 글로벌 통신사와 협약 및 미팅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로, 행사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CEO들이 회사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다. 다만 참석한다 해도 활동 범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KT는 올해 기자단은 운영하지 않고 전시회 부스 규모도 크게 줄인다. 통상 KT는 20명 정도의 기자단을 운영했고, 직원도 10명 이상 참가했다. 올해는 직원도 5명 이하로 최소화한다. 반면 CEO는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당초 황창규 회장과 구현모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만 황 회장은 참가하지 않고, 다음 달 주주총회를 통해 CEO로 공식 취임하는 구 대표이사 내정자가 단독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구 사장은 공식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3월 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사 참가가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MWC 2020'과 같은 대규모 모바일 국제 전시회가 없어 '국제 무대에 먼저 얼굴을 알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KT 관계자는 "행사가 취소되지 않는 한 구 내정자가 MWC에 갈 것"이라며 "대표이사 취임 전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에 미리 눈도장을 찍고, 황 회장을 대신해 예정된 행사에 대표로 참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LG유플러스 하현희 부회장이 MWC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당초 20여 명의 기자단을 운영하고, 대규모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이통 3사 중 가장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기자단 운영을 취소했다. 역시 글로벌 기자간담회도 열지 않고, 전시 부스도 최소화한다. 반면 글로벌 통신사와 업무제휴 등 미팅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박 사장은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하 부회장 역시 같은 입장이다. 글로벌 통신사와 업무제휴 등 미팅을 잡은 상태라 참가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다. 다만 활동 폭은 좁아질 전망이다. 계열사인 LG전자가 국내기업에선 처음으로 MWC 참가를 전격 취소한 탓이다. LG유플러스는 MWC에서 LG전자 전시 부스에 함께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부대 전시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부대 전시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행사가 취소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CEO들의 참석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훈 기자 yes@

마케팅 경쟁 줄이고 脫통신 사업 키우고 이통사 '수익성 확보' 총력전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성적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 고가 요금제 위주인 5G 가입자 증가로 매출이 늘었지만 5G 투자와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은 악화한 것. 하지만 올해엔 요금 마케팅을 지양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먼저 SK텔레콤은 본격 5G 시장 확대에 재도약하는 이동통신(MNO) 사업과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에 기반해 올해 연결 매출을 19조2000억 원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대비 8% 이상 늘어난 수치다. SK텔레콤은 올해 MNO 사업에서 다양한 국내·외 사업자와 협력해 5G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B2B 모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취하는 첫해부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KT는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과 사업 혁신을 가속화한다. 국내 1위 인공지능(AI) '기가지니'는 가입자 214만 명을 넘어선 음성 기반 미디어 이용을 대중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출시된 모바일 미디어 '시즌(Seezn)'은 AI 기반의 초개인화 콘텐츠로 미디어 이용의 지능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래 성장에 기대되는 스마트팩토리, 실감형 미디어, 지능형 보안 등 5G 융합 서비스도 AI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KT는 올해 요금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무선서비스 가입자 8% 증가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

SKT, 미디어·보안·커머스 신사업 경쟁력 강화
KT, 스마트팩토리 등 AI 활용 5G 융합 서비스
LG U+,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협력 확대

의 5G 가입자 수는 작년 말 기준 208만 명을 기록했고 올해 말까지 600만~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디어 사업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을 4월 말 출범시켜 800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종합 미디어 사업자로 본격 나선다. 보안 사업에서는 SK ICT 패밀리와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융합 보안 상품, 무인주차, 홍보안 등을 확대하고 시니어 케어 등 고도화된 기술 기반 서비스를 선보이며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치열한 경쟁환경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커머스 사업은 올해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며 내실 경영을 지속해 나간다. 11번가는 파트너십을 확대해 차별적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쇼핑 검색에 재미까지 더하는 더욱 고도화된 '커머스 포털'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KT는 올해 매출은 25조 원, 별도 투자액은 3조1000억 원이 목표다. 신입 CEO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이 지

(ARPU) 성장률 2%를 목표로 잡았다. 5G와 AI 기술 상승을 꾀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협력도 강화한다. M&A를 통해 인수한 LG헬로비전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LG유플러스 무선 가입자 수는 1416만4355명으로, 올해 가입자 수를 약 1530만 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마케팅 비용 역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총 마케팅 비용을 지난해보다 줄인다. 특히 지난해 인수를 LG헬로비전과의 시너지 창출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창국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그룹장은 "넷플릭스와의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도 전략적 관점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과도 제휴할 뜻을 내비쳤다. 최 그룹장은 "5G 관련 매출은 2조 원 이상 실현되고, 5G 가입자는 최소 450만~5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yes@



U+골프 '골프 연구소' 보고 경품 받아가세요 LG유플러스는 골프중계 서비스 'U+골프'의 오리지널 콘텐츠 '골프 연구소' 시청 시 고급 아이언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고객 중 24일까지 U+골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 노출된 '골프 연구소' 공금해오' 이벤트 메뉴 내 영상을 시청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전염병 감염자, 하루 7명 이하 접촉시 관리 가능"

KAIST 연구팀 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사스, 메르스 등 전염병은 반드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시점도 예측가능하다는 3년 전 연구 결과가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감염자의 하루 평균 접촉자 수를 7명 이하로 통제할 수 있으면 어떤 전염병이라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주장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해당 연구내용이 담긴 논문은 2017년 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교신 저자로, 당시 학생이었던 김기성 바이오브레인 대표가 제1 저자로 참여한 '복잡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2017년 5월 'BMC 바이오인포매틱스(BMC Bioinformatics)' 18호에 게재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전염병의 확산은 감염성·회복성·사회구조 등 3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감염병이라도 초기에는 감염자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나타난다. 회복자가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되거

나 사망으로 인해 전염병 확산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진의 해석이다.

또 누적 회복자 수를 통해 감염병이 수그러드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감염률, 지속기간, 평균 접촉자 수를 알면 전염병이 '꺾이는' 시점을 알 수 있다는 것. 연구팀 관계자는 "거의 사회 전원이 감염되는 병이라도 회복자 비율이 27%에 달하면 전염병이 수그러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률 100% 병이라도 접촉자 수를 하루 평균 7명 이하로 줄이면, 전체를 감염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한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0.7% 경증

'리하우스 확장' 실적 견인

한샘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4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냈다. 한샘은 이 같은 기세를 이어가 올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샘의 4분기 영업이익은 217억5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385억7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를 30%가량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2019년 연간 매출액은 1조7023억 원, 영업이익 55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0.3% 줄었다.

한샘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관해 리하우스 대리점 유통망 확장 등 공격적 경영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샘리하우스 대리점 수는 2018년 말 82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50여 개로 5배 이상 늘었다. 한샘은 올해 500개까지 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형 한샘리하우스 대형소룸도 현재 23개에서 올해 내에 50개로 두 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한샘은 창사 50주년을 맞는 올해 강승수 회장을 새 CEO로 맞아 실적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성적표’ 받아든 제과 빅3 CEO... 오리온만 웃었다

국내 제과업계 빅3(롯데제과·오리온·해태제과식품)의 지난해 실적이 발표되면서 CEO(최고경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국내외 시장에서 선전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해 이경재 사장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각각 실적 개선과 해외 사업 강화라는 과제가 남은 신정훈 해태제과 사장과 민명기 롯데제과 사장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리온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2조233억 원, 영업이익 3273억 원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성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중국 법인은 신제품 출시 성공과 온라인 채널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4%, 12.0% 늘었다.

베트남 법인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 16.5% 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착한포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격 변동 없이 20% 증



오리온, 지난해 실적 역대 최고... ‘영업통 이경재’ 입지 다져 민명기 롯데제과 사장 ‘동남아 제과벨트’ 성패 올해 판가름 신정훈 해태제과 사장, 사업구조 개편 통한 실적 개선 추진

량한 ‘오스타’ (포카칩), ‘스윙’ (스윙칩)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오리온의 실적 개선은 ‘영업통’ 이경재 사장의 작품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 사장은 2007년 베트남 법인장에 취임한 첫해 매출액을 2배 늘린 데 이어 2013년 베트남 법인을 최대 제과 회사로 키워내며 ‘초코파이 신화’를 쓴 주인공이다.

오리온이 수년간 실적 부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담철곤 회장은 이 사장을 구원투수로 불러들였고, 2015년부터 한국 경영총괄을 맡은 이 사장은 매년 실적 개선에 성공(영업이익 △2017년 1074억 원 △2018년 2822억 원 △2019년 3273억 원)하며 담 회장의 기대에 부응했다.

여기에 지난 연말 불거진 제주도와의 ‘제주 용암수’ 판매 갈등이 봉합된 점도 이 사장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줬다.

지난 연말 롯데그룹 인사에서 50개 계열사 대표 중 22명이 물러난 상황에서 자리를 지킨 민명기 롯데제과 사장은 올해가 기회이자 위기라는 분석이다.

민 사장은 인도를 비롯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 사업에 자신감을 얻은 민 사장은 취임 첫해인 2018년 미얀마 제빵업체 ‘메이슨’ 인수를 결정했고, 지난해부터 미얀마 사업을 시작했다. 롯데제과는 메이슨 인수로 동남아시아에 ‘제과 벨트’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 영업 성패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매출 2조881억 원, 영업이익 976억 원을 기록해 각각 23.2%, 51.6% 증가했는데 해외법인 매출이 반영된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08년부터 해태제과를 이끌고 있는 신정훈 사장은 수년간 부진한 회사 실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허니버터칩’ 열풍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해태제과의 실적은 내리막길을

걸고 있다. 해태제과는 △2016년 7928억 원 △2017년 7604억 원 △2018년 725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지난해 역시 예년 수준의 실적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신 사장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해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100% 자회사로 하는 물적 분할을 의결했다. 분할과 관련, 업계에서는 “재무 구조 개편을 위한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사업부 매각 절차”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해태제과 측은 “해태아이스크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적 제휴, 자본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매각설을 일축한 바 있다.

다만, 한때 2조 원 규모를 웃돌던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1조6000억 원 규모로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4억대 스위스 명품 시계

갤러리아명품관은 이달 29일까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에거르 쿨트르’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사진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4억 원 상당의 ‘듀오미터 스페르투르비옹 마스터 피스’ 사진제공 갤러리아명품관

‘싱가포르 셰이크쉍 2호점’ 성공 예감

오픈 전부터 200m 대기줄... 1호점은 아시아 최대 매출

SPC그룹은 7일 ‘셰이크쉍(Shake Shack)’ 싱가포르 2호점 ‘닐로드(Neil Road)점’이 성황리에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셰이크쉍 닐로드점’에는 그랜드 오픈 시간인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이전에 이미 300여 명의 고객들이 200미터 이상 줄을 서는 등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셰이크쉍은 오픈 당일 방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스페셜 에디션 토트백을 증정하고, 오픈 세리머니로 라이팅쇼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셰이크쉍 닐로드점’은 1900년대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거리와 건물에 자리 잡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이 건물 외관에 비추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픈 첫날 ‘셰이크쉍 닐로드점’에서는 썬버거, 썬스택, 스모크쉍 등의 대표 메뉴 외에도 싱가포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신제품 ‘치킨쉍(Chick ‘n Shack)’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닐로드점 시그니처 콘크리트

(아이스크림 디저트)인 ‘오픈 세서미(Open Sesame, 열려라 참깨)’와 ‘아이 오브 더 타이거(Eye of the Tiger, 호랑이의 눈)’도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SPC그룹은 자체 개발한 토종효모로 만든 번(햄버거빵)을 SPC삼립에서 생산해 싱가포르 매장에 수출, 공급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문을 연 싱가포르 첫 매장인 ‘주얼창이점’은 일평균 4000여 명 이상 방문하는 등 아시아 지역 최대 매출을 올리는 매장으로 자리 잡았다”며 “싱가포르 대표 변화기에 위치한 ‘닐로드점’도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2월 미국 Shake Shack Inc. 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11개 셰이크쉍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은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에 힘입어 2018년 10월 싱가포르 사업 운영권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4월 ‘주얼창이’에 싱가포르 첫 매장을 선보였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메르스 반사의 봤던 편의점... 이번엔 ‘글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반사익을 거둔 편의점 업계의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르스 당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10% 이상 급감했던 반면 편의점은 다중집객시설 공포에 도려 고객들이 몰리며 반사익을 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6월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 치솟았고, 전달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5%를 기록하며 오히려 선방했다.

점포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감염 공포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점포인 편의점으로 소비자가 몰리면서다. 당시 편의점의 매출을 끌어올린 품목은 도시락과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식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만만치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는 편의점 업계가 신종코로나 영향권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새벽배송을 무기로 쿠팡과 마켓컬리가 자리를 잡았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주문·배달 앱도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중집객시설 회피에 따른 반사

신종 코로나 공포에 발길 뚝 새벽배송·배달 앱 시장 확대 소비자들 온라인 주문 늘어

익은 오히려 이들 업체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당시 새내기에 불과했던 쿠팡과 마켓컬리 등은 이제 거물급 유통사로 성장했다. 여기에 SSG닷컴도 등장했다. 이들은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새벽배송이라는 명칭으로 신선식품 등의 익일 배송에 주력하고 있다. 이 업체들의 밀키트와 HMR(가정간편식) 빠른 배송은 편의점의 즉석식품 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신종 코로나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8일 쿠팡의 로켓배송은 역대 최대치인 330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170만여 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주문이 몰리면서 새벽배송 상품의 경우 배송이 최대 2시간 지연됐다. 마켓컬리의 냉장 상품을 주문도 조기에 마감됐다. SSG닷컴 역시 즉배송과 새벽배송의 일부 상품도 품절 사태를 빚었다.

게다가 주문·배송앱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도 등장했다. 지난주 주말(1월 31일~2월 2일) 배달의민족 주문량은 약 493만 건으로 한 달 전 주말(1월 3~5일) 주문량 443만 건에 비해 11% 증가했다. 요기요의 같은 기간 주문량도 한 달 전보다 18% 늘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는 다중유통채널을 꺼리면서 상대적인 이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매출에 큰 변동 없이 괜찮다”면서 “우려되는 것은 입학식·개학식 등이 연기되면서 유통인구 증가를 기대하던 점포가 타격을 입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고객 모시기 시도가 한창이다. 이마트24는 2월 내내 도시락 및 원두커피 할인에 나서며 고객 발길을 끌고 있다. 모바일 전략을 강화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GS25는 쿠팡이츠와 손잡고 배달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노랑진 회 주문 예약 서비스를 내놨다. 실제 서울 전 지역에서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CU의 2월 첫 주말(2월 1~2일) 요기요 배송 주문은 직전 주 대비 65% 늘었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마트 ‘온리프라이스’ 매출 3000억 돌파

출시 3주년 1억5000만 개 판매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온리프라이스’가 3년간 누적 매출액 3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2월 출시한 ‘온리프라이스’는 롯데마트가 협력사와 예상 판매량을 산정해 총물량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물량은 롯데가 100%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되는 PB 상품이다.

롯데마트 이용 고객 중 온리프라이스 제품 구매 비율은 2017년 37%에서 2019년 61%까지 올랐다.

첫 출시 이후 3년간 총 540개 상품을 선보였고 판매량은 1억5000만 개를 기록했으며 협력업체도 189개로 늘었다.

일회용 종이컵 등을 생산하는 용호산업은 3년 새 거래액이 2배 성장했다. 2018년



12월 출시한 정수필터 샤워헤드는 온리프라이스 대표 상품으로 꼽히며 판매량 13만 개, 누적 매출액도 10억 원을 넘어섰다.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을 통해 온리프라이스 제품을 성장시키는 한편 주요 품목 매출액 일부를 소외 아동에 기부하는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코로나發 공매도 '광풍'... 소비주 넘어 수혜주도 타깃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한 직원이 3일 마스크를 쓰고 상황을 알리는 거래소 로비의 전광판 앞에서 있다. 상하이/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공포 속에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분주하게 바뀌며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확산 초반에는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두고 있는 소비 업종 위주로 공매도가 크게 늘었다. 이번달에는 테마주를 중심으로 급등한 종목으로 타깃이 옮겨가는 양상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등장한 1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총 84개의 기업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 거래가 갑자기 집중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공매도 거래를 하루 동안 금지한다.

이는 전년 동기간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개수(16개)와 비교하면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기간에 공매도의 집중포화 대상이 된 기업 수가 폭증했다는 뜻이다.

확산 초반에는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두

84개 기업 과열종목 지정...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경증 화장품·여행·카지노 이어 마스크·세정제 기업 대거 포함
주식 대차잔고 56조1600억... '하락장 베팅' 투자자 늘어

고 있는 소비주 위주로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대장주'로 분류되는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거래 내역 중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며 공매도 매매비중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매매비중은 각각 30.88%, 22.68% 수준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도 20.93%로 5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1월 말까지 여행·카지노주(하나투어,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GKL), 화장품주(브이티지엠피, LG생활건

강) 등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중국 시장을 위주로 수익성을 높여가던 일부 의류주(F&F)에도 공매도가 집중됐다. 과열 종목 지정 당일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적게는 5%, 많게는 15%가 넘게 빠졌다.

소비주 주가가 일제히 내림세를 그리자 타깃은 수혜주 쪽으로 옮겨갔다. 1월 말부터 마스크(오공)와 소독·세정제 기업(서린바이오, 승일, 오가닉티코스메틱), 진단 키트를 만들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이오 기업(아미코젠, 수젠텍, 피씨엘, 미코) 등이 잇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손 세정제를 제조하는 오가닉티코스메

틱의 경우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현지로부터 61억 원의 제품 주문을 받았다고 밝힌 3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5.9배 증가했다. 당일 주가는 15%가 넘게 하락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한 기술 특허를 등록한 수젠텍도 같은 날 공매도 거래가 6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13.7% 내렸다.

공매도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주식 대차잔고도 1월 중순부터 급격히 늘어난 뒤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주식 대차잔고는 56조1600억 원으로, 지난해 말(47조4000억 원)보다 18.5% 늘어났다. 지난해 8월 58조2069억 원까지 늘었던 잔고는 10-12월 순차적으로 감소해 47조 원대까지 내려가며 코스피 강세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설날 전후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하락장에 베팅한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노우리 기자 we1228@

증권업계 '몸집 불리기' 한창

이베스트투자증권, 작년 779억 이어 1200억 유증 결정
하나금융투자, 7000억 규모 유증... "초대형 IB로 도약"

국내 증권사들의 몸집 불리기가 한창이다.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대형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고, 중소형사는 기업금융(IB)과 트레이딩 부문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차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200억 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상장되지 않는 무의결권 배당 우선전환주이며 조달자금은 전부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증자는 올해 목표인 '자기자본 1조 원 달성' 일환이다.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자본 1조 원과 업계 상위 10위권의 수익력을 갖춘 '1등 중형증권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브로커리지의 경쟁강도가 심화돼 자기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변화가 많은 시

기에 빠른 벤치마크를 통해 적응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에도 일 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779억 원을 조달한 바 있다.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나 채권 발행, 금융 주선 등 여러 투자금융(IB) 사업의 밑천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 시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IB 시장이 대형사로 편중되자 중소형사들도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1조 원대 증권사로 도약했다.

대형사들은 초대형 IB 지정을 목표로 자기자본 4조 원 달성을 시도하고 있다.

2016년 8월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

되면서 초대형 IB 시대가 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조건을 갖춘 미래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업체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단기여유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권에 도전할 수 있다. 발행어음을 찍어낼 수 있으면 경쟁사 대비 자금조달 능력이 비약적으로 커진다.

하나금융투자는 4997억 원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증자가 마무리되면 하나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3조4751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어나 초대형 IB 인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초대형 IB 진입으로 업계 내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 확대, 최근 감독 당국의 규제 비용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신한금융투자가 6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기자본 4조 원을 넘겼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지분 5% 이상 상장사 313곳 국민연금, 주총서 목소리 높이나

자본법 개정 '5% 룰' 완화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능
상장사 안전 통과 부담 커져

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상대로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300곳을 넘어선 가운데 적극적 의사 표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1월 말 기준 총 313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292곳) 이후 1년 1개월 만에 21곳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역시 2018년 말(80곳)과 비교해 20% 수준인 16곳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 곳은 KT,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곳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

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상대로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5% 룰도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보고 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되는데, 종전까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던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면서 상장사들의 주총 안전 통과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다원 기자 leedw@

한국기업평가, 두둑한 현금배당 이유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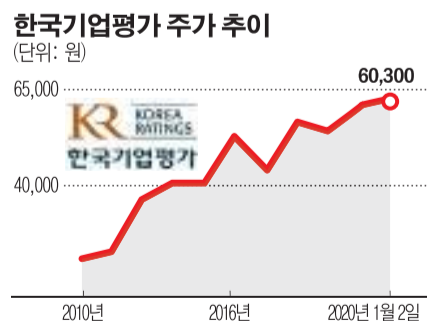
공시돋보기

당기순익 따라 배당성향 적용
지나해 실적 '역대 최고' 전망

한국기업평가가 현금 배당을 두둑이 하면서 시장 이목이 쏠린다. 2010년부터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꾸준한 외형 성장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고배당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높아지자 2010년 대비 배당수익률은 감소 추세다. 다만 최근 3년간 4%대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배당주로 유효하다고 평가받는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보통주 1주당 8518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올해 현금배당을 발표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한국기업평가는 2011년(81.8%)을 제



외하고 2010년부터 배당성향을 6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정 금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익에 따라 배당성향을 적용해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3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누적)은 231억 원으로 이미 2018년 연간 당기순이익(202억 원)을 넘어섰다. 4분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역대 최고 실적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현금배당 규모가 클 수 있었던 이유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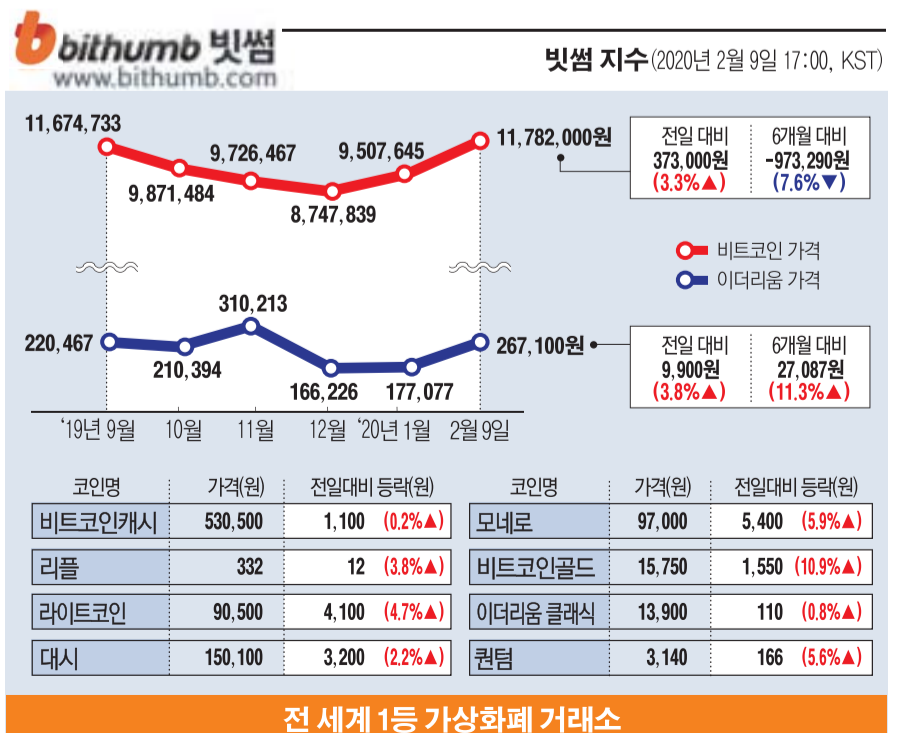
꾸준한 외형 성장은 고배당의 배경으로

짧힌다. 매출액은 2014년 614억 원→2016년 743억 원→2018년 842억 원→2019년 3분기까지 786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4년 162억 원→2016년 209억 원→2019년 3분기(누적) 293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38억 원에서 231억 원까지 늘었다.

이익잉여금도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441억 원→2016년 537억 원→2018년 5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잉여금이 뒷받침 해주면서 배당성향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던 것이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2014년 115억 원에서 2016년 134억 원, 2017년 154억 원, 2018년 162억 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시장에서 30%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은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수원·용인·성남〉

서울 집값 누르자 '수용성' 이어 평촌·의왕도 '10억 클럽'

‘평촌 더샵 센트럴’ 전용 84㎡ 작년 12월 10억 찍고 이젠 12억 경기 28개市 중 9곳 ‘10억 클럽’…교통·교육 호재 호가 ‘경증’ “저평가 지역 풍선효과…서울 정체 장기화 땀 상승동력 부족”

서울 아파트 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현상)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평촌신도시와 의왕시에서도 전용면적 84㎡형 아파트값이 10억 원까지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면적 84.99㎡형은 지난해 12월 10억 원에 매매됐다. 평촌신도시에서 전용 84㎡대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억2000만 원에 거래됐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실거래 가격이 열 달 만에 1억8000만 원 뛰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2억 원까지 상승했다.

학의천을 두고 평촌신도시와 마주 보고 있는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도 지난해 전용 84.98㎡형이 10억 7080만 원에 팔리면서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해 11월 입주 시작 지 두달 만이다. 2016년 청약 받았을 때만 해도 전용 84.98㎡형이 분양권 시세가 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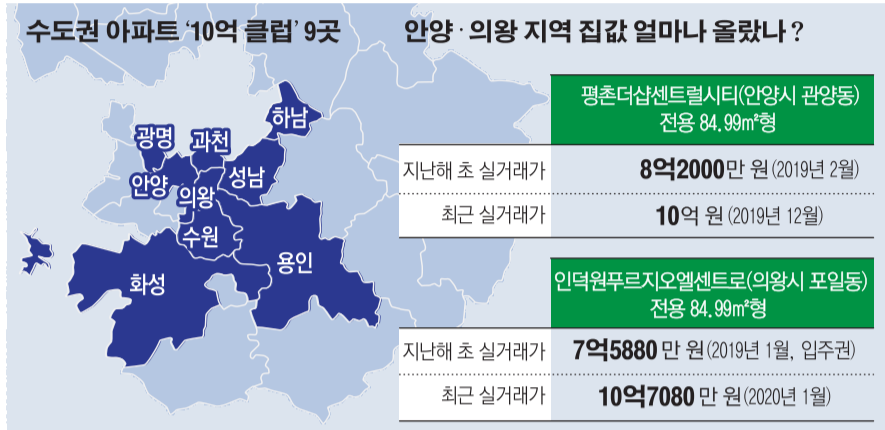
대었던 걸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5억 원 넘게 커졌다.

업계에선 정부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함께 수도권으로 눈을 돌렸다고 설명한다. 경기도의 28개 시(市) 가운데 전용 84㎡형 기준 실거래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곳은 9곳(수원·용인·성남·과천·광명·하남·화성·안양·의왕시)이다. 열 곳 중 세 곳꼴이다. 고양시도 일산동구 킨텍스원시티3블록 전용 84.5㎡형이 최근 9억5000만 원에 팔리면서 10억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억 클럽에서도 수원·용인·성남시 3곳이 ‘수용성’이라 불리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구축, 원도심 재개발 등 부동산 호재가 주목받고 있어서다. 수원 팔달구나 성남 수정구 등 원도심 지역의 집값 상승이 특히 빠른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과 달리 과천이나 분당 등을 제외하면 대출이나 청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도 경기권 아파트의 장점이다.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과 의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와 안양시가 인덕원에 GTX C노선 정차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촌에선 호계동 목련 2·3단지를 시작

으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하면 평촌신도시를 조성할 때 들었던 노후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처럼 탈바꿈할 수 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시 확대 등 정부의 교육정책 개편도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평촌동 ‘향촌롯데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월 7억5000만 원에 팔렸던 전용 84㎡형이 11월엔 8억8400만 원까지 올랐다. 지은 지 28년 된 노후 아파트지만 중·고등학교 학군이 좋고 학원가와 가깝다는 장점 덕분이다. 이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9억3000만 원까지 뛰었다.

평촌 T공인 관계자는 “평촌 일대는 아직 실수요 구매자가 많다.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하락장에서도 안정된 가격을 지켰다”며 “하방 경직성이 있다 보니 안전 자산이라는 점에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풍선효과가 지속할 것이라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남부엔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된 지역이 많다”며 “12·16대책이 효과를 내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와의 겹매우기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윤 연구원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서울 아파트값 정체가 장기화하면 수도권에서도 집값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거래도 증위값도 ‘뚝’…강남3구 고가아파트 ‘하락세’

서울의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뜸해지고 있다. 증위가격(집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작년 이맘 때보다 2억~3억 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감소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시세 9억~15억 원 아파트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8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02건)보다 14건 줄었다. 강남구는 76건에서 57건으로, 송파구는 81건에서 73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서초구만 45건에서

지난달 188건으로 작년보다 14건↓ 거래 늘어난 서초구 13건 증가 그쳐 대출규제로 지난주 매매가 떨어져 국토부, 21일 실거래 고강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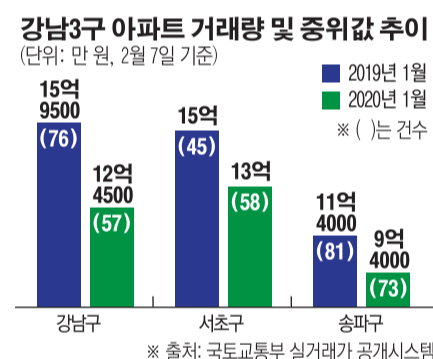
58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다.

증위값은 강남3구 모두 하락했다. 작년 1월 강남구의 증위값은 15억9500만 원으로 16억 원에 근접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2억4500만 원으로 3억5000만 원 떨어졌다. 작년보다 거래량이 증가한 서초구의 증위값도 1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2억 원 떨어졌다. 송파구의 증위값도 11억4000만 원에서

9억4000만 원으로 2억 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거래 소명 과정 또한 강화되면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 소강상태를 보인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작년 4월 19일 주간엔 -0.1%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며 -0.04%를 기록했고, 서초구는 작년 6월 7일(-0.03%), 송파구는 작년 6월 14일(-



0.02%)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며 각각 -0.03%, -0.06%의 변동률을 보였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자금조달 계획서 등 거래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이 강화되는 등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강남권은 매수심리가 더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 가격 상위 10위권의 가격 수준은 작년 1월

보다 높아졌다.

직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3.3㎡당 아파트 매매가 1~10위의 가격 수준은 6000만~1억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달 같은 순위의 가격 분포는 8000만~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개포주공4단지(전용 42㎡)의 3.3㎡당 매매가가 1억 원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3.3㎡당 매매가 수준이 올라간 것이다. 이는 대출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즉 자금 동원 능력을 갖춘 자산가들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합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1월 3.3㎡당 아파트 매매가 20위권의 하한가는 5600만 원대였는데, 같은 기준으로 올해 1월에는 하한가가 7300만 원대로 올랐다”며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송파 ‘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 입찰자 0명

대출규제·신종 코로나 여파 첫 유찰

1만 가구에 가까운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진)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이 처음으로 유찰됐다.

9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7일까지 최고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아파트 2가구와 상가 4호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을 진행했지만 응찰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번 보류지 매각 유찰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84L형(전용 84.97㎡)은 17억5000만 원, 84A형(전용 84.98㎡)은 17억3500만 원이었다. 일괄 매각 조건으로 진행된 상가는 지



하 1층 2호와 지상 1층 2호 등 총 4호의 최저 입찰가격 합계가 31억8800만 원에 달했다. 여기서 이 단지에 최근 신종 코로나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얼어붙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근처 초등학교에 휴교령까지 내려지면서 거래와 매수 문의가 뜸해졌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소들의 설명이다.

헬리오시티 내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단지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문 상담 문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청약시스템 이관으로 멈춰 있던 분양시장이 재개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로 시작부터 주춤한 모습이다. 견본주택 개관이 연기되거나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는 건설사도 등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울산 중구 ‘동남하이빌’ 등 전국 2개 민간

단지에서 총 471가구(일반분양 69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을 비롯해 충남·전남·제주 등 총 여섯 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오프라인 대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되는 단지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애초 7일에 견본주택 문을 열 예정이었던 대구 ‘청리힐스자이’는 21일로 개관 일

정을 연기했고, 서울 ‘마곡지구 9단지’(공공분양)는 아예 분양 일정을 이달 말로 잠정 연기했다. 또 ‘매곡역 푸르지오 SK뷰’,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과천제이드자이’(공공분양) 등은 실물 견본주택 개관을 취소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10일에는 경기 성남·수원·화성시의 경기행복주택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날짜	구분	시	구사군	읍면동	아파트명
2/10 (월)	발표	경기	성남시	삼평동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수원시	원천동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2/12 (수)	계약	경기	성남시	삼평동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2/14)
			수원시	원천동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2/14)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2/14)
2/13 (목)	발표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A24(행복주택)

날짜	구분	시	구사군	읍면동	아파트명	접수	개관		
								수원시	매곡동
2/14 (금)	오픈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유림노르웨이숲	접수	개관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사이버 모델하우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 ♣
2/14 (금)	접수	충남	금산군	금산읍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	접수	개관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동흥동센트레빌
				울산	중구			학성동	동남하이빌 1순위
2/17 (일)	접수	제주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A23(행복주택)~(2/17)	접수	개관		
				제주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A23(행복주택)~(2/17)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검찰 '라임사태' 사기 혐의 수사

금감원, 라임자산운용·신한금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수사의뢰
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 재배당... 금융 사건 인력 보강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아 불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금감원은 수익률 둘러막기, 전환사채(CB) 편법 거래 등의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의 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

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현재 출국 금지된 이 전 부사장이 국내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

이번 수사 의뢰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한 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신한금투와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중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된 '플루토 TF 1호' 펀드다.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 인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작제 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 맡겼다.

더불어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3명)·서울동부지검(1명) 검사 총 4명을 파견했다. 이번 검사 파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액을 늘리며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기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펀드 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라임 사건으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추산됐다.

한편 남부지검은 라임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라젠 사건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토익 보기 전 체온 측정부터...

9일 오전 토익시험이 열린 서울시내 한 시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관계자가 수험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보험 약관 설명 안했다면 계약자 고지 무관 보험금 줘야"

마스크 사재기 적발땀 벌금 5000만원

서울시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판매 업체 매점매석 행위 점검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개인위생 물품 사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판매 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도 점검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이다.

피해 사례로는 △'배송예정' 안내 후 판매 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 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 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이나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 많았다.

특히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의 피해가 75.4%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물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도 매일 진행한다.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 후 가격 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 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우선 조사

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 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02-2133-9550-2)로 연락하면 된다. 마스크·손세제 등 의약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량이 많은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B씨가 오토바이 이용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

실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박영사
신간도서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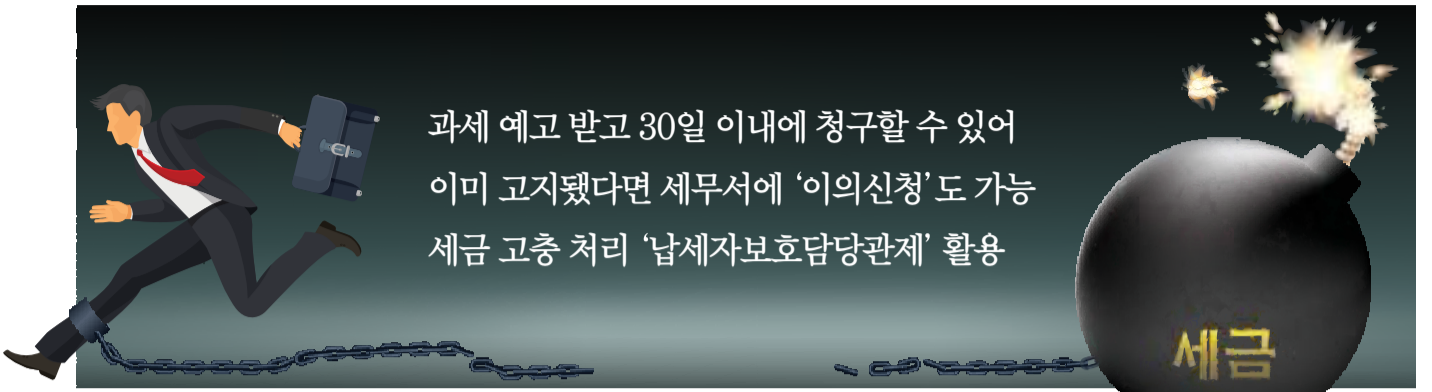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www.pybook.co.kr **박영사**

억울한 세금 추징 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세요

생활속 세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 또는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과세 예고 받고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이미 고지됐다면 세무서에 '이의신청'도 가능
세금 고충 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제' 활용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직 씨는 이름처럼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김 씨는 2015년 음식점을 오픈한 이후 줄곧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엔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에 김 씨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김 씨는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와 행정예고 통지 등을 통해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우선,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의 경우 (세금) 고지 전과 고지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상황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고지처분하는 경우에 (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한 후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가산세 부담 줄이려면 조기결정신청제도 이용

이 밖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다.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

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율러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행정예고 통지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일례로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 경과 또는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갖고 2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다만, △공동사업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이다.

동업엔 각자 소득에 따라 소득세 나눠 내는 게 유리

◇동업하면 소득세 부담 ↓ 세금은 공동연대-대기업에 다니다 최근 정년퇴임한 박 미래 씨는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함께 퇴직한 윤 부장과 동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박 씨는 윤 부장과 아무리 친해도 돈 문제만큼은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일례로 갑, 을, 병 3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갑 50%, 을 30%, 병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 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5000만 원, 을의 소득금액은 3000만 원, 병의 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갑은 545만 원, 을은 245만 원, 병은 9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93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무려 908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분산되면 될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적어지므로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www.douzone.com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회계관리
- 세무조정
- 인사급여
- 영업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무역(수출입)
- 서비스관리
- 공사현장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 바로수금서비스
-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HUSIM



손목이 욱신거린다

하루 종일 핸드폰 학생

손이 늘 차갑다

손이 잘 붓는다

끝없는 집안일 주부

하루 종일 칼질 요리사

손가락이 뻣뻣하다

손이 자주 저린다

손 사용이 많은 미용사

키보드 마우스 직장인

손가락이 아프다

하루의 손 피로, 바로바로 푸세요! 건강한 손을 위해 - 휴심 손마사지기



믿을 수 있는 품질, 신뢰받는 서비스 - 휴심 핸드케어

- 원하는 부위 지정 관리 마사지기 앞쪽에 개방되어 있어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까지
 - 손으로 주무르는 것처럼 3가지 강도와 성별에 따라 맞춤으로 시원한 강력 공기압 에어백
 - 혈자리를 찾아 꼭꼭 수지침 지압법과 동일한 휴심만의 특허 마사지 방식
 - 차갑고 시린 손에 딱 온열 마사지가 가능한 히터 기능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마사지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이 쉽고 자유로운 간편 버튼, 가벼운 무게, 무선 충전 방식
 - 업그레이드된 지압효과 내부 엠보싱 내피천 적용으로 손등까지 빈틈없이 누르는 지압
 - 플라즈마 기능 탑재 마사지기 내 음이온, 양이온이 함께 발생되어 손 살균 작용에 도움
- ※ 아담 핸드케어 (MD-5508W), 이브 핸드케어 (MD-5506W) 적용



아담 핸드케어 + 이브 핸드케어
~~294,000원~~ → **198,000원**

아담 핸드케어 + 토브 핸드케어
~~306,000원~~ → **248,000원**

이브 핸드케어 + 토브 핸드케어
~~306,000원~~ → **248,000원**

● 아담 핸드케어 • 모델명 : MD-5508W • 안전인증번호 : SU10602-16001B • 디자인 및 기구설계 : KOREA • 조립 및 생산 : CHINA • 전력 : 7.5W • 전압 : 100-240V / DC5V / 1.5A • 중량 : 700g • 크기 : 250X150X108(mm)
● 이브 핸드케어 • 모델명 : MD-5506W • 안전인증번호 : SU10602-16001B • 디자인 및 기구설계 : KOREA • 조립 및 생산 : CHINA • 전력 : 7.5W • 전압 : 100-240V / DC5V / 1.5A • 중량 : 700g • 크기 : 250X150X108(mm)
● 토브 핸드케어 • 모델명 : MD-3307 • 안전인증번호 : SU10602-16001B • 디자인 및 기구설계 : KOREA • 조립 및 생산 : CHINA • 전력 : 7.5W • 전압 : 100-240V / DC5V / 1.5A • 중량 : 1,000g • 크기 : 300X165X100(mm)

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아람비스토어



주문전화

080-470-8888

통상 전문가에서 재계 지원군으로 '인생 2막'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내정된 우태희 前 차관

차관 출신 인사 이례적 '경제계 대변' 대한상의 위상 반영
첫 과제는 '규제 혁신'...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 보탬 듯

우태희(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내정되며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해결사'로 나선다.

우 전 차관은 최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내정돼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이후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기존에는 산업부 1급 실장급 출신 인사가 맡았지만, 차관 출신 인사가 오면서 대한상의의 역할이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차관은 배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U.C.버클리 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경희대 대학원 등에서 수학했다.

행정고시 27회 수석으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통상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우 전 차관은 통상산업부 사무관, 산업자원부 국제통화기금(IMF) 대책반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지원실 에너지절약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실무에서 주도한 '통상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우 전 차관은 부회장에 취임 이후 최근 규제에 얽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상의는 박용만 회장이 직접 정재계를 찾아 '규제 혁신'을 외치는 등 기업들이 규제에 얽혀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역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까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장벽은 높은 상황



이다. 우 전 차관 역시 까다로운 업무 처리에 할 말은 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부회장으로서 정부에 규제 혁신을 위한 '직설'을 하며 기업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한중 FTA 실무를 담당할 당시 우 전 차관은 가서명을 체결한 뒤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며 "서로 이익균형을 거쳐 협

상결과를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 혁신과 같이 기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조율과정을 통해 윈-윈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 전 차관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 향후 통상 정책에서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차관은 2017년 이임식에서 "보호무역 파고가 높아질수록 통상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며 "통상교섭본부가 컨트롤타워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대한상의의 글로벌 사업 역량 역시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 전 차관은 2002~2006년 뉴욕총영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했고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 등을 지내면서 통상 관료 중 미국 등 해외 인맥이 가장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우 전 차관은 의원총회를 거친 이후 대한상의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기슭에 '블루제이스' 새긴 류현진



류현진(33)이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몸을 풀고 있다. 류현진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입단한 후 처음 공개된 훈련 사진이다.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의 훈련 장면을 소개한 사진 아래에 '새 옷을 입은 새 친구'라고 쓰며 류현진의 합류를 반겼다.

사진출처 토론토 블루제이스 인스타그램

유세근 한국외국기업협회장 선출

한국외국기업협회는 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세근 한국브랜스 대표를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9일 밝혔다.



유세근 신임회장은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고려대 국제경영학 MBA를 졸업했다. 1995년 지엠코리아 입사 이후, 델파이 패커드 한국지부 지부장을 거쳐 델파이코리아 대표를 역임했다. 2018년부터 한국브랜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송영록 기자 syr@

한국바스프 스페셜티부문 사장 송준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는 이달 1일자로 한국 바스프 스페셜티 사업부 문 사장에 송준 전 바스프 남미지역 석유화학제품 비즈니스 총괄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계 독일인인 송 사장은 2006년 루트비히스하펜 본사에 입사해 연구개발, 제품 관리 및 글로벌 코그니스 인수 통합 등 석유화학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전문성을 쌓아왔다. 브라질에서 바스프의 남미 석유화학제품 사업부문 비즈니스 총괄을 담당하며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담당해 온 송준 사장은 리더십 역량 또한 인정받아 한국바스프 스페셜티 사업부문 사장직을 맡게 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변창흠 "LH의 미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과 토론회 열어

변창흠 한국도주주택공사(LH) 사장은 7일 위례 신호희망타운 홍보관에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와 '내가 만들어 가는 LH 이야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LH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정책 및 사업제안, 공공서비스 강화, 국민 참여 확대 등 3개 분야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총 19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LH 실무진 심사(1차 심사) 및 내·외부 전문가 심사(2차 심

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27건이 선정됐다. 변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아이디어 공모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LH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변 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LH의 지난 10년을 국민과 함께 돌아보고, 향후 미래의 주역인 젊은 청년들과 LH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소통하는 국민의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변창흠(가운데) LH 사장이 7일 위례 신호희망타운 홍보관에서 열린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및 '내가 만들어 가는 LH 이야기' 토론회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LH

짐 로저스 "휴전선 사라지면 한반도 흥미로운 곳 될 것"

평창평화포럼 개막... "철도 연결돼 부산~런던 오가는 날 기대"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사진)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북한에는 풍부한 청년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있고, 스위스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더 나은 모습을 기원하고 있다"며 "휴전선이 사라지고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는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평

창평화포럼 개막 기자회견에 참석한 로저스 회장은 "어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고, 68년이 지난 지금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슬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과 남한이 어마어마하게 국방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38선(휴전선을 의미) 근처에서 K팝 콘



서트를 열면 얼마나 긍정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남북간 철도는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고 부산에서 런던으로 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함께 자리한 구닐라 린드버그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도 우리는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많은 관계와 토론을 통해 성공시켰다"고 회고했다. 홍석동 기자 hong@

LG, 에티오피아 학생 세탁기 수리교육



LG전자는 2~7일 에티오피아에 있는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우수학생 7명을 두바이의 중동아프리카서비스법인에 초청해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현지 학생들이 LG 시그니처 세탁기 수리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생활SOC추진단 부단장 이상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및 파견 △정책기획관 류광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미래인재정책국장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 이성봉 △경북지방우정청장 김영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 권석민 ◇국장급 교육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승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정착팀 △국립외교원 강건기 △국방대학교 구혁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소통정책관 김현기 △미디어정책국장 김대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문영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김상욱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박태영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유병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제)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국방대학교 교육과제) 박성우 ◇국장급 전보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정일정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지원근무 김종철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우영 △산재보상정책과장 오태용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임용(일반직고위공무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한식 △음부즈만지원단장 조종래 △지역기업정책관 김성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문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임성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혁신과장 윤병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사선안전과장 장인숙 △원자력안전과장 김기환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 신종환 △통일교육원 파견 오맹호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장 유동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기후변화생태과장 정구복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강민구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이근석 △"기술지원팀장 정병우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상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비료과장 고병구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장 남성희

부음

영화 '청춘 스케치' 이규형 감독 별세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의 이규형 감독이 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1957년생인 이 감독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영화 '청춘 스케치'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강수연과 박중훈이 출연한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1987)를 연출해 큰 사랑을 받았고, 이 영화로 제26회 대중상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이후 '어른들은 몰라요', '굿모닝 대통령', '난 깜짝 놀랄 짓을 할 거야', '공룡 선생' 등의 각본 연출을 맡으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고인은 담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으나 최근 암이 재발해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장례식은 인천 청기와 장례식장 202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10일 오전 7시 40분이다. 유정선 기자 dwt84@

▲김창례 씨 별세, 이응효(한국수산무역협회 부회장)·중효(교보생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춘효(주오스프리미어 대표이사)·선효(네파주 대표이사)·명숙·경숙 씨 모친상, 박주석(한국에너지기술 전문연구원)·강명선 씨 장모상= 9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2-3010-2261

▲이병조 씨 별세, 권순옥(뉴비씨 대표이사)·순구(대성골재 관리부장) 씨 모친상= 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58-594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이 디지털 및 사이버 공간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정치뿐만 아니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도 대거 활용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행태는 중국 정부가 이 기술기업들을 장악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첨단기술 분야 기업 간의 관계가 훨씬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총동원해 '코로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거대기업 알리바바의 과학 연구기관인 다모아카데미는 중국 동부 저장성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동 계층 검출 및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AI 진단 기술로 의심환자의 유전자 분석 시간을 수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모바일 오피스 툴인 당톡이 개발한 홈 오피스 시스템의 전체 서비스 라인을 1000만 개 기업에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춘절 연휴를 2월 2일까지 연장한 후 처음으로 출근한 3일, 거의 2억 명의 사람들이 이 당톡을 이용했다고 한다.

텐센트는 실시간 오디오와 비디오 통신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300명이

한번에 온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료 클라우드 지원으로 우한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실과 스마트 캠퍼스를 만들어 주었다. 바이두는 중국의 학협회 베이징 지부가 시민들에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과 6일 만에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베이징 병원 호흡기 및 감염부서 소속 의사 1000여 명이 접속하는 5세대 초고속 통신망(5G), AI, 화상통신, 원격의료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의사들이 실시간 영상과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AI 기업 메그비이는 기술자들이 벌써 0.3도 이내의 오차범위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이 디지털 및 사이버 공간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정치뿐만 아니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도 대거 활용되는 양상이다. 미국 외교평의회(CFR)는 3가지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의사, 간호

사, 일반 지원자 등에 대한 기술지원이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화웨이는 모두 우한에 새로 건립된 휘선산 병원에 5G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 업체 레노버도 장비를 기증했다. 알리바바는 백신과 신약 개발에 필요한 모든 AI 기능을 공공 연구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사이버 보안업체 지안신은 정부 부처, 의료 및 질병관리센터, 언론 등 발생 예방과 통제에 관여하는 단체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둘째, 의료 사업자와 피해자들에게 돈,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5억7500만 위안(약 4조4000억 원)이 넘는 돈이 기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알리바바는 10억 위안의 의료장비 특별기금, 텐센트는 3억 위안의 예방관리기금, 바이두는 3억 위안의 의약품 연구개발기금을 설립했다.

셋째, 중국 지도자들이 정보의 흐름을 장악하도록 기업이 돕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정부의 대책을 비판할 경우 최고 15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위챗은 전염병과 관련된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린 사용자들에 대한 계정 기능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바이두와 위챗은 보건당국인 병원과 보건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은 인터넷상에서 유해정보와 루머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경보,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 공공보건 제언, 예방 및 통제 정보가 담긴 40억 개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러한 IT 대기업들의 행태는 중국 정부가 이 기술기업들을 장악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첨단기술 분야 기업 간의 관계가 훨씬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가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전쟁'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낸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정의 노동과 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는 등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였다.

그러자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적절하게 치료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런 비상사국에 마스크 수급을 위한 연장근로에 반대한다니, 그들은 다른 흑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인지 묻고 싶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자동차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발병으로 중국

산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대자동차의 조업 중단은 불가피해졌다.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의 휴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사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부품 공급의 차질은 사측이 천재지변에 대비하지 않고 부품 수급망을 다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측의 이 같은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위기에 사태의 책임을 사측에 돌리면서 고통 분담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노동조합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 정권하에서 더욱 노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IBK기업은행장은 노조의 출근 저지에 가로막혀 출근조차 못하다가 29일 만에 첫 출근을 했다. 이 과정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중재에 나서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최후의 출근 저지 투쟁이 겨우 마무리되었다.

이날 발표된 노사합의문을 보면, 노조추천이사제와 희망퇴직 문제 등 그간 모든 국책은행이 요구해오던 경영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낙하산 인사를 명분으로 실리를 쟁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현행 노동법은 노조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행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근하는 기관장을 볼모로 경영사항까지 관철시키려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분배도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잦은 파업과 급격한 임금인상에서 보듯이 무리한 요구의 남발과 이기적 행동으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시민단체보다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서 불필요한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자제하여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당면한 노동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소비자·시민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명언 "사람은 살려고 태어나는 것이지 인생을 준비하려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생 그 자체, 인생의 현상, 인생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숨이 막히도록 진지하다."

러시아의 시인·소설가. 그의 작업은 다소 난해하다. 상징주의를 극복한 '연상(聯想)'으로 대상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의 유일한 장편이자 대표작 '닥터 지바고'가 국내에서 발표가 허락되지 않자 이탈리아에서 출판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놓고 국외 추방 위기에 놓이자 수상을 거부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90-1960.

☆ 고사성어 / 반소사(飯疏食) '거칠고 반찬이 없는 밥'이라는 뜻으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일컫는 말. 원전은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篇). "나물밥 먹고 맹물 마시며 팔을 굽혀 베고 자도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다. 옳지 못한 부나 귀는 내게 있어서 뜬구름과 같다." [飯疏食飲水曲肱而枕之 樂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불의한 부나 귀는 공자(孔子)에게는 아무런 애착이 없는 것이었다.

☆ 시사상식 /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영상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 어깨·목 통증 등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 안구건조증, 거북목증후군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 우리말 유래 / 성가시다 지금은 '귀찮다, 괴롭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파리하다, 초췌하다'는 뜻이었다. '얼굴이 성가시다'처럼 사용한다.

☆ 유머 / 쿨한 아들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서 이혼하기로 했다. 아들에게 전후 사정을 알려야 될 듯해 애기했다.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는데, 니 생각은 어때니?"

아들의 대답. "엄마-아빠가 저를 만들 때 언제 저와 의논했었나요? 알아서들 하슈!"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고교 시절 중국에서 일주일간 홈스테이 하며 만난 중국인 친구가 있다.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후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취업도 한국에서 했다. 그 친구가 한국에 정착한 덕에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그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중국 우한은 친구의 고향과 멀지 않다. 그의 안부가 궁금했고, 중국에서 보였던 그의 부모님 건강이 걱정됐다.

이번 설을 한국에서 보낸 친구는 어떻게 지내느냐는 말에 "불편한 소리 많이 들었지~"라며 예들러 안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설에 고향에 다녀올걸. 그러면 출근하지 않았을 텐

기자수첩 박미선 유통바이오부/only@

한국에 사는 중국인이 전한 안부

데"라고 답담하게 말했다. 이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대체 누가 어떤 불편한 말을 했길래.

그의 부모님은 동네가 폐쇄되는 바람에 며칠째 집 안에서만 지내고 있다고 했다. 타지에서 가족 걱정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친구는 누군가 내뱉은 이

런저런 말들에 상처를 꽤나 받은 듯했다. 모든 것이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란다며, 으레 하는 이야기밖에 건넬 수 없었다.

신종 코로나가 국내에 퍼지면서 온라인에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중국을 혐오하고 중국의 식문화를 비난

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배달업체 노조는 중국인 밀집 지역에 배달을 금지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대학 개강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당장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커질수록 비난의 화살은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 등 애꿎은 집단으로 향한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가 4월, 혹은 그 이상 율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간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혐오 현상이 추가되고, 의견이 다른 사람 간에 사회 갈등이 더 깊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전월세 시장 규제 '위험한 유혹'

1989년. 전세시장에는 기록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무려 29.6%나 급등한 것이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22.3% 치솟았다. KB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1986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전셋값 상승률이다.

당시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 호황과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들썩이자 정치권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 됐다. 전세금을 2년 동안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 미리 한꺼번에 올려받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최근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주춤한 사이 전세시장이 들썩이자 정부·여당이 전세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시권에 든 전세 대책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전셋값 상승세를 꺾을 대안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밀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에 관련법도 발의돼 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처음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다시 임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는 기존 거주기간 2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취지는 그럴 듯하다. 집주인이 상한선

데스크칼럼

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내에서 가격을 올리면 '억' 소리 나는 전셋값도 누그러뜨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력적인 제도인데 왜 논란이 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다. 전세와 월세 가격을 잡으려다 오히려 시장 구조를 왜곡시켜 세입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게 무리한 가격 통제에 따른 전월세 물량 공급 축소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은 전월세 임대료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질 테고, 그러면 전월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게 뻔하다. 가뜰이나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을 더 줄여들게 하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서민들이 더욱 세들어 살 집을 찾기 어렵게 할 뿐이다.

제도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요즘처럼 전셋값이 뛰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법 시행 이전에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정 기간 임대료를 시장의 가치만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초기 임대료를 한꺼번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전셋값이

전정부지로 치솟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집주인들은 너도나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게 보듯 뻔하다. 임대차 계약갱신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최대 11%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면계약이 성행할 가능성도 크다. 전월세 가격 인상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계약서에 실제 임대료보다 가격을 낮게 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질 수 있다. 중부세 인상분 등 각종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야말로 흑 때려다 흑 하나를 더 붙이는 격이다. 이중계약 및 편법 신고 사례를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행정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일일이 적발하기는 힘들다.

이면계약을 통해서도 전월세 부족분에 대한 보충이 안 되면 집주인은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것이다. 집을 수리해 상태를 좋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할 유인이 없어지니 집은 점점 더 낡아질 것이다.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전세시장 안정 같은 굵직한 민생 현안을 두고 다급해진 정치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속출할 게 뻔한 카드를 쉽게 꺼내 들어선 안 된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위성에 급급해 인위적으로 민간 임대차시장을 규제할 경우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전월세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choch21@

시설

한국 경제 성장전망 뒷걸음, 비상대책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충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대폭 낮추는 추세다. 수출과 투자, 소비의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종전 2.8%에서 2.5%로 내렸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경제의 손실이 과거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때와 비슷할 것으로 가정한 조정인데, 앞으로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 전망치를 2.5%에서 2.3%로 하향했다. IB인 JP모건과 모건스탠리도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3% 이하로 떨어뜨리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우선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감소로 교역환경이 크게 악화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계속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자, 한국 제조업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중간재 비중이 매우 높아 다른 어느 나라보다 타격이 큰 구조다. 수출은 이미 지난해 10.3% 감소로 역성장했다. 정부는 올해 3.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 사

태로 오히려 하방압력만 가중하는 양상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쌍용차의 공장 가동중단에서 보듯, 중국의 생산 차질은 중간재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제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전자·정유·화학·철강 등 다른 주력산업에도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유통·관광·외식·숙박·공연 등 국내 소비산업의 피해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3%이지만 벌써 먹구름이다. JP모건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2%에서 2.0%로 낮췄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우 2.5%였던 전망치를 1.5%로 무려 1%P나 떨어뜨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내놓은 '경제동향 2월호'의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몰아닥친 중국발 신종 코로나 쇼크에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상황이 나빠지면서 우리 경제의 반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충격파는 더 넓고 깊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에 악재만 중첩되고 있다. 비상한 위기인식으로 수출과 투자, 소비를 지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

박은평의 개평(概評)



금융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인파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도 발생하고 있다. 공연이나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해외여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에도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 있었다. 바로 하나은행 영업점이다.

KEB하나은행이 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출시한 최고금리 연 5.01%의 '하나저적금' 때문이다. 월 10만~30만 원까지 적금을 부는 1년짜리 정액 적립식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56%에 온라인 채널로 가입하면 연 0.2%,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연 1.25%를 더해 최고 연 5.01%를 준다.

3~5일 사흘간 한정판매한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좌가 없거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까먹은 고객들이 지점으로 몰렸다. 가입자가 폭주하면서 앱이 정상 가

'우대금리'의 함정

동되지 않자 지점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 상품은 월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과세 기준 세후 만기이자자는 8만2650원이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1~2% 안팎인데, 연 5%의 적금이 나오자 이자 8만 원에도 136만여 명이 몰리며 대박을 친 것이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전염 공포를 이겼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P)·라임 등 고위험 투자상품과 관련된 문제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앞으로도 고금리 특판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가 고객 10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내놓은 5% 금리의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도 '1초' 만에 완판됐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적은 돈이라도 굴리고 모으려고 높은 이자를 찾아 거래 은행을 옮기는 '금리노마드'족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을 살펴보면 우대금리 요건 제약이 많아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 특판을 미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상술이라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는 작은 혜택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급여 이체나 카드사용 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도 많다.

금리가 높아 보이지만 대부분 확정형은 아니다. 최대 5%라면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3% 식이다.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합쳐야 보장되는 경우도 있다. 월 납입금액도 대부분 월 30만 원 이하다. 월 최대 납입금액이 10만 원인 상품의 금리가 2%일 때와 4%일 때 1년 뒤 이자 차이는 1만 원 수준이다. 이벤트 적금의 경우 대부분 가입 기간도 최대 1년까지다. 이렇다 보니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만기 때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특판 이벤트는 가입자 확보와 홍보를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이다. 무리하게 가입하기보다는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와 납입금액,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pepe@

개 우리말 한 토막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틀려도 너무 틀려." "형제가 어쩔 그렇게 생각도 틀리고, 행동도 틀린지."

지난주 이를 연달아 친구들을 만났다. 요즘 이슈인 신종 코로나 얘기부터 대학 입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얘기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무의식중에 유독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크게 되거나 어긋날 때, 또는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진 것을 이룰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얼굴 생김새나 생각, 행동처럼 서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해야 한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예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틀린 표현이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 "형제가 어쩔 그렇게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지"와 같이 해야 맞다.

그런데 동사인 틀리다와 형용사인 다르

다르다와 틀리다

다를 왜 혼동하는 걸까. 평가에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 틀린 표현을 그대로 노출하는 매스컴, 동질적식이 강한 우리 사회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성향 등을 학자들은 주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인이야 어떻든 다르다와 틀리다는 품사뿐 아니라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헛갈린다면 반대어를 생각하면 구분이 쉽다. 다르다의 반대어는 '같다', 틀리다의 반대어는 '맞다'이다. 즉,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는 다르다 또는 같다를, 정답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는 틀리다 또는 맞다를 쓰면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것'을 많이 접하게 된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으며, 처한 환경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달라도 귀담아 잘 듣고 이해해 보자. 상대방도 어 느새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달랐던 서로의 의견이 점차 더 나은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THE FIRST SUV BY GENESIS GENESIS GV80



GENESIS

GENESIS.COM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외출 서비스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동급 ▶ 3.0 D 2WD (27): 복합 11.6km/l(도상10.4km/l, 고속도로13.3km/l) CO2 배출량167g/km(배기량2,996cc) 공차중량2,480kg(1차동 95kg(동급)) ▶ 3.0 D 2WD (19): 복합 11.2km/l(도상10.5km/l, 고속도로13.7km/l) CO2 배출량164g/km(배기량2,996cc) 공차중량2,155kg(1차동 95kg(동급)) ▶ 3.0 D AWD (27): 복합 10.6km/l(도상9.7km/l, 고속도로11.2km/l) CO2 배출량184g/km(배기량2,996cc) 공차중량2,260kg(1차동 95kg(동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상당할 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 연비의 제한은 7인승 옵션 선택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철수 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자정개발자로서의 카리스마를 통해세상만 변해가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